

3부

여성운동가 이소선

인터뷰 4회차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15:00



왼쪽부터 이승숙, 이숙희, 이수호, 유정숙, 정인숙

1. 만남과 노동운동

이수호 안녕하세요. 구술을 통해서 이소선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채록하는 제3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운동가 이소선’이라는 주제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인류의 역사 전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식민과 독재로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의한 희생자인 동시에 남성이라는 절대 권력의 폭력에 희생되었던 이중의 희생자로서 역사의 주변부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고 열사의 유지를 잇기 위한, 자기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노동운동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투쟁하신 정인숙 선생님, 유정숙 선생님, 이숙희 선생님, 이승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이라는 젠더적 관점, 여성으로서 생각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이소선 어머니와 노동운동에 대한 기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질문지에는 젠더나 성인지라는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웃음)

진행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분 활동가를 모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시대 순으로 앉아 계십니다. 초창기부터 함께해 주신 정인숙 선생님, 그 옆에는 70년대에 아카시아회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함께한 유정숙 선생님, 80년대를 이어 가면서 투쟁의 선봉에 있었던 이숙희 선생님, 그 뒤를 이었던 80년대 이승숙 선생님이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태일 운동이나 특히 청계



사진관에서 설 기념으로 이소선과 청계노조 여성 조합원,
1975, 전태일기념관

피복노조, 청우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부터 투쟁하셨던 분이 지금도 그 전선에 계시고요. 정인숙 선생님도 그렇고, 이숙희, 이승숙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유정숙 선생님도 다행히 계시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시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인사를 하실 때 주로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언제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라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숙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이 1970년 11월 27일에 결성되었어요. 저는 아마 1971년 5월부터 부녀부장으로, 그 당시에는 여성부장이 없었어요. 부녀부장의 직책으로 1975년 4월 인가 5월까지 활동했어요. 제가 청계노조에서 미싱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당시에 저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했는데요. 완전히 의식화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단순히 부모님의 잘못만이 아니고. 그 당시 부패한 사회구조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특히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고려대학교에 노동문제연구소가 있었어요. 김낙중 선생님과 노중선 선생님이 3개월 코스로 노동문제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서 노동문제나 경제문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우치게 되었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웃음) 그렇게 눈이 떠진 후에 마침 전태일 열사 분신행거 사건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장례식 치르고 그 무렵 연동교회나 여러 군

데 대학에 가서 강연하실 때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태일 열사가 너무 힘이 없이, 적은 인원으로 무언가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평화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1971년도 초에 전태일 열사 친구분들을 중심으로 노조 활동을 했는데요. 평화시장에 일하는 사람의 85퍼센트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부녀부장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소선 어머니를 직접 뵈었을 때는 노동청년회 전국 회장인 윤순녀라는 언니가 있을 때였어요. 그 언니가 제가 노동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아니까 어머니를 만나자고 해서 평화시장 옥상에 있던 노조 사무실에 같이 방문했어요. 어머니를 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여성 활동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를 처음 뵈었는데요.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굉장히 벅찼어요.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생겨서 제가 바로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랑 이야기가 되어서 부녀부장으로 5월부터 근무를 했죠.

이수호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정인숙 그때 저는 만 4년간 청계노조에서 소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어느 정도... 한 몇백 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황당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요. (웃음) 그 당시 유정숙 선생님이 큰 역할을 많이 하셨죠. 만 4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노동자들

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길은 노동조합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청계피복노조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회장이 되었어요. 그때 전국을 다녔어요. 당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과 어용노조 몇 개밖에 없었고 민주노조는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과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활동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을 3년인가 4년인가를 하면서 전국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회원들을 의식화시키면서요. 마침 제가 회장을 할 때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국제회의에 가 보니 굉장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운동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노동청년회 임기가 끝나고 제가 부산 고무공장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부산에 고무공장이 엄청났어요. 일하는 분들도 많고, 동양고무에서 노동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요. (웃음) 경찰들의 감시가 붙는 바람에 성공은 못 했어요. 부산 지역에서 일하다가, 당시 동일방직에서 김영태가 박정희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탄압했어요. 김영태가 대의원으로 출마했는데요. 당선은 못 됐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내용의 유인물을 동일방직 여성들이 뿌리다가 그때 같이 잡혀가서 구속되었어요. 몇 개월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감시가 심해서.

다시 올라온 뒤 성남에서 노동상담도 하다가 1987년 전국노동자대투쟁, 가톨릭노동조합 출신들이 전국에 포진되어서 전국에 노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인천 주안 같은 곳에서는 100여 개 노조를 만들고 하면서. (웃음) 그때 서울 민주노총 전신이 어디죠?

이수호 전노협.

정인숙 전노협부터 민주노총까지 만드는 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다 1998년에 비정규직 여성노조를 만들고 위원장 하면서, 민주노총에도 몇 년 있다가 그 후에는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지금은 이주여성 쉼터에서 피해 받은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인숙 선생님처럼 자신이 해 온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죠. 정인숙 선생님 처음 활동을 했을 때 몇 살이었나요?

정인숙 1971년도니까 22세요.

이수호 지금은 일흔 넘으셨네요?

정인숙 지금은 우리 나이로 73세요. (웃음)

이수호 50년 동안 계속 그런 활동을.

정인숙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웃음)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수호 아는 사람들, 만났던 분들도 그렇고. 그 중심에는 늘 전태일, 이소선 어머니가 있죠.

정인숙 그렇죠.

이수호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자로, 노동운동 활동가로, 사회활동가로 살고 계시군요. 이제 할머니이신데도 생생하십니다. (웃음)

정인숙 (웃음) 어머니 말씀은 이따가 뒤에서 할게요.

이수호 네. 지금 자기소개를 이어서 할게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로 말씀해 주세요.

유정숙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숙입니다. 제가 청계지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사건 당시에 저는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일어났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못 하고, 평화시장 그러니까 공장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저 자신이 굉장히 움츠러드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잘 듣지 않고 오직 일하는 데에만 충실한 노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때는 가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 전기가 나갔을까?’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때 성터 아래 충신동에 살았기 때문에 평화시장이랑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혹은 씻고라도 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돌아오니까 붙잡아 놓더라고요. 그러다가 두어 시간 지나니까 오늘은 안 되겠으니 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왜? 일하기 싫어서?’, 저도 일을 해야 해서 한 거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이승숙

당시 상황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정도의 운동가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대단한 운동가로서 큰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후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쯤 지난 다음일 거예요. 가 보니까 몇 평 되지도 않는 킁킁한 사무실에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백열등이었으니까요. 참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엔 공장보다 못한 곳이었어요. 가서 기웃거리니까 까만 한복을 입으신 분이 나오시는데요. 저도 키가 작지만 저보다 키가 작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까만 한복에 쪽 찐 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저보고 ‘어떻게 왔냐?’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와 봤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갑다면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당시 저도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맑은 공기, 숨 한번 깨끗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요. 그나마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평화시장 옥상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들여다봤고 그때 이소선 어머니를 처음 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내가 태일이 엄마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22-23세였었는데요. 엄마의 심정을 모르긴 하지만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는데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여기 많이 와야 합니다. 많은 노동자가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언가 자꾸 궁금해졌어요. 그날은 첫날이니까 잠시 이야기하고는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왔어요.

그 뒤로는 궁금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시간은 점심시간 한 시간뿐이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옥상 사무실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때는 아직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안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날이 추웠으니까 장작 불로 난로 때고 그랬어요.

조금씩 사람들과 인사하고 알아 가게 되면서, 거기서 무언가 필요로 하

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인데, 나는 여태까지 나 혼자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고. 어머니와 자꾸 접촉하다 보니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또 저희 엄마를 생각하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하겠더라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일반 조합원이었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청계노조는 다른 곳과 달리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먼저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나온 후에 노동자들이 가입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입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였어요. 그 얘기를 초창기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전에 정인숙 친구가 말을 했지만 노조 사무실에는 제가 먼저 다녔어요. 그때 부녀부랑 차례대로 부서가 생겼어요. 여성 노동자가 80퍼센트 이상인데 여성 간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데다 제가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제가 동생 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그런데 사무실에 가서 보면 점심때 커다란 냄비에 라면 몇 개 넣어서 퐁퐁 끓은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점심을 제대로 먹게 해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12월이 다가올 때였는데요. 제가 잘은 못 그리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웃음)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밥값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녁에

일 끝나면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일이 보통 10~11시에 끝나요. 집에 들어가면 씻고 자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앉아서 그리다가 졸리면 자고 그래서 하루에 몇 장 못 그렸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한 장에 5백 원에 팔았어요.

이수호 직접 만들어서요?

유정숙 네, 제가 만들어서요. 책갈피에 꽃잎이나 나뭇잎 모으는 걸 잘했어요. 거기에 글씨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주위에 알려지고 다른 공장에까지 소문이 나서 다른 공장에서 카드를 한번 보자고 찾아왔어요. 카드가 없다고 그러면 몇 장 그려 달라고 하고 그렇게 팔아서 그 당시 돈으로 한 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웃음)

이수호 와! 많이 모았네요.

이숙희 그때 월급이 3천 원 정도일 때니까.

유정숙 네. 그걸 모아서 전달했어요. 초창기 지부장님이 한국노동총에서 오신 김성길 지부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하는 일이 어쩔 그렇게 감쪽하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합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공장의 조합 가입 원서를 받고 또 아는 공장에 가서도 가입 원서를 전달하고 받아오는 역할을 했어요.

이후에 정인숙 친구가 와서 부녀부장 할 때, 사무실 간부들이 저희 둘이 같이 의논해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정인숙 친구는 외부에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렇게 해서 둘이 손발이 잘 맞아 함께, 지금까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이수호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연, 정말 다시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나오니까요. 다음 이숙희 위원장님.

이숙희 안녕하세요. 저는 이숙희라고 합니다. 저는 1969년도에 평화시장에 들어와서 시다 일을 했어요. 1970년에 전태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화시장에 들어왔을 때 일 년만 고생하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가야지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웃음)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평화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건물에 들어오니까 어두침침한 복도에, 문도 옆으로 미는 나무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 환경이 싫었어요. 저는 공장 내에서도 별로 말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여기 온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전태일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불에 타서 죽었어’라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잠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라는 거예요. 아마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었나 봐요. 제가 키가 작고 어려서 걸리면 안 되니까 나가서 놀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옥상에 가서 놀다 왔는데요.

그러다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평화시장에 갔지만,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조합의 종류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나중에 생

각해 보면 그분이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4·19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평화시장 들어올 때 ‘여기도 노동조합이 있겠지?’ 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노동조합은 은행이나 무역회사에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갔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지금처럼 이야기를 잘하지도 않고 소심해서 못 가 봤어요.

평화시장은 층마다 가운데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옥상에도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저는 밑에서는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가끔 옥상 화장실을 갔는데요. 그러다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죠. 아까 말한 대로 쪽 찐 머리에 한복 입었어요. 양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우뚱하면서 걸어 다니셨는데요. 애들이 ‘저 사람이 죽은 사람 엄마래’라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님이 ‘그 깡패랑 그 엄마가 노조를 만들더니 매일 모여 앉아서 찬송가를 부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찬송가에 끌렸어요. (웃음) 왜냐하면 제가 평화시장 오기 전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니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어요.

노조에서 1972년도 5월에 야간 중학과정, 중등교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언니들과 달리 용기가 없어서 옥상까지는 올라갔는데 노조 사무실은 못 들어가고 경비실 있는 곳에서 바라만 봤어요. 그러다가 5월에 양승조 총무부장하고 정인숙 부녀부장 언니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금곡릉 야유회에 오라고요. 저는 관심이 늘 거기에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참가비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용기가 있었나 봐요. ‘내가 회비를 내줄 테니 가자’고 해서 이선재라는 친구랑 김영섭이라는 언니랑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노동조합에 발을 들였어요.

제가 발을 들인 1972년에는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기틀은 닦고 있었고, 아카시아회도 소그룹이 몇 개 있었잖아요? 저희가 가자마자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는데요. 저는 가자마자 벼락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아카시아회랑 총회에서도 봉사부장, 교육부장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1972년도까지는 11월에 대의원 대회가 있었잖아요. 11월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으로 뽑히고, 대의원 대회에서 운영위원으로 보선을 해 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뭐지? 나보다 친구가 더 활발한데 왜 나를 뽑았지? 뽑아 줬으니까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점심시간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운영위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의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활동에 발을 들였고. 1975년에 언니들 다 그만두셨다고 하셨는데, 선배님들도 다 그만두시면서 1976년도부터 이승철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상근하게 되었어요. 1975년도에 노동교실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해서 노동교실을 찾아왔는데, 77년도에 한 번 더 싸웠는데 뺏겼어요. 그때 저하고 4명, 총 5명이 구속되어서 10개월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전태일재단의 교육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정숙 제 과정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노조에 나가면서 제의를 받았지만 형편상 되지도 않고 돕는 일만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의원, 그리고 지부장 밑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비상근 부지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뭔가 상근하지는 않으면서 쪽 이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인숙 친구가 1971년도 5월에 온 후에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모임이나 클럽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장마다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10명 정도 모아서 아카시아회 모임을 만들었어요. 1971년도 6월 6

일어요. 그 전부터 준비 작업은 있었지만 그날이 창립일이라고 할까요? 6월 6일 동구릉에 도시락을 싸 갔어요. 이름이 아카시아회잖아요. 지금 아카시아꽃이 철인데, 그때는 아카시아꽃이 6월에 한창이었어요. 그러면서 ‘동구 밖 과수원 길~’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정인숙 그 단계에서 제가 한 10명 내지 12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조직을 해야 하는데 저는 노조에 상근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미리 짠 거죠. 유정숙 씨가 모임을 하자고 이야기하기로 준비해서 저는 따라가는 식으로 했어요. 다 기술 좋은 미싱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임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유정숙 이제 아카시아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다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책상 하나 두고 둘러앉든지 옥상에서 해야 하나까요. 그래서 10명 미만 소그룹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처음에 아카시아회로 했다가 나뉘게 됐죠. 제일 언니 팀이 백합 팀이었어요. 주로 꽃 이름으로 했거든요. 백합 다음에 무궁화 클럽이었어요. 무궁화 클럽도 20대 초반들이었어요.

정인숙 백합 팀에 10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꼬서 와도 금방 또 한 팀이 돼요. 그래서 무궁화 팀이 금방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팀이 다른 요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월요일에 모이면 다른 팀은 다른 요일로. (웃음)

이수호 다단계 기법을 그때 활용하셨군요. (웃음)



이숙희

우리가 전태일 동지와 어머니를 잊지 않아야죠.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바랐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인숙 다단계는 몰랐고 그게 점조직이죠. 두 팀이 생겼으니까 한 사람씩만 더 들어오면 두 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팀이 생기니까 금방 80명,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팀만 잘 키우면 그 사람들이 노조의 핵심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이수호 지금 하신 말씀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아카시아회를 비롯한 여러 소그룹을 만들어서 조직 활동을 하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승숙 선생님은 어떻게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헤어지지 못하시는 지. (웃음)

이승숙 안녕하세요. 이승숙입니다. 저는 1977년도 15세 때 평화시장에 들어갔어요. 7월에 입사했는데요. 제가 간 곳이 청계천5가에 있는 동신상가라고 노조에 속해 있는 상가였어요. 제가 들어간 곳은 잠옷 공장이었어요. 7월에 들어갔는데 그때 유니온 스킵이였을 거예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조합원이 되었고 조합비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즈음 공장장이 저희를 불러 놓고 ‘노조에서 오는 사람과 말 섞지 마라. 빨갱이니까’, 속된 말로 ‘신세 조지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입사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11월에는 ‘노조에서 가자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된다. 재단사 한 명이 영웅심에 자기 몸예다 불을 지르고 죽었는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에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오면 아예 옥상으로 올라가 있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동안 도망 다녔어요. 저희 상가 담당자가 임경숙 언니랑 민종덕 지도위원이었어요. 노조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옥상으로 뛰어가거나 말도 안 섞고 그랬어요. (웃음)

그러다가 경숙이 언니가 자주 오면서 야학을 이야기했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로였지만 그때는 다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잖아요.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검정고시, 야학이라고 소개를 해서 거기에 솔깃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저 혼자 제일교회에 있는 야학을 찾아갔어요. (웃음) 그렇게 야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야학에 다니면서 저는 분명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야학이라고 들었는데 가 보니까 노동법이 어떻고 근로기준법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무언가 배우는 것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다녔는데 우연한 기회에 조합으로 오라는 거예요. 생리수당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때는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몇 달 치 밀린 생리수당을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뭐지? 왜 내가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야학에서 그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야학에 다니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노동조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 4월에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데 농성을 한다고 야학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농성 끝나기 3일 전인가 갔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처럼 어린 여성들이나 언니들,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너무 작은 사무실에 꼭 차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가 토론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띠게 토론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장에서 퇴근할 때 실밥 문었을까 봐 두려워서 털고, (웃음) 도시락 가방에서 소리 날까 봐 기죽어서 다니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있던 언니들이나 제 또래들이 자기 의사를 잘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생전에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지막 날까지 같이했어요.

그때 처음 이소선 어머니를 뵈어요. 그 당시 사실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모의 장례식을 했었어요. 모의 장례식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시간 반 이상 넘

게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요. 전태일 선배님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것을 느끼면서 끝까지 참여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랑 엄마가 찾아와서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날은 못 봤어요. 집에 가서 오빠한테 엄청 맞고 있는데 9시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평화시장에 평화가 왔다’고요. 저는 야학은 열심히 다녔지만 조합 활동은 안 해서 그런 감정은 몰랐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오빠한테 맞으면서도 ‘뉴스 보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오빠한테 대들었어요. 오빠랑 저랑 열다섯 살 차이가 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같은 오빠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1981년도에 노조가 해산되고 중견 간부들이 다 구속된 후에 저는 야학에서 어느 정도 선배급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전주 언니랑 재덕 언니가 야학 졸업생들을 모았어요. 노동조합이 강제로 해산이 되었고 선배들은 구속이 되었지만 우리는 노동조합을 뺏길 수 없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살려 내야 한다는 취지로 찾아다니면서 저희를 설득했어요. 저도 야학에서 사회의 구조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이 계시던 곳이잖아요. 민주화운동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요, 저희에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같이하게 되었죠.

청계 모임부터 시작해서 장장 8년 동안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 투쟁을 같이하게 된 거죠. 원 없이 최루탄도 마시고, 맞기도 많이 맞고. (웃음) 온갖 첩보 작전이란 첩보 작전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전두환 정권이라서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경찰서에 광용이 오빠랑 한번 끌려갔었어요. 그때 비밀모임을 하고 있을 때라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것이 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8년 동안 겪었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개선되었던 노동조건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노동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지만 같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8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결국은 1988년 5월 3일에 다시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받아 냈죠.

그때 마지막 72일간 농성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합원들 다 월세방 빼고, 72일 동안 일도 못 나가고, 노동조합 규합 활동하면서 해고되는 극한 상황까지 가고. ‘이거 정말 안 되나? 누구 하나 죽어야 하나?’ 하는 극한까지 갔는데요. 결국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1988년 5월에 신고필증을 받게 되었는데 조금 허탈했어요. 그런 종잇조각 받으려고 8년을 그 많은 노동자가 고생하고 학생들도 같이 싸우고 구속되었구나 하면서요. 그래도 드디어 다시 우리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열심히 투쟁하고. 또 합법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다시 와이셔츠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도 15일간 다시 해 보고,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그동안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다가 새롭게 합법적인 활동을 하니깐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계노조 간부들이 계속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상황에서 여성 사무장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한영 언니가 직무대리도 맡게 되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1992년도에 결혼하고 서울의류업 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가 2012년까지 서의노 활동을 같이하죠. 지금은 청우회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인숙 그때 전국 집회나 노동자 집회가 매우 많았는데요. 거기서 이승숙 씨가 사회를 보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대중 집회를 끌어가

는 리더십이 굉장해요. 저는 그게 계속 기억이 나요. 앞에서 구호 외치고 사회 보고 했던, 그런 것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큰 집회에는 많이 나올 거예요. 역할이.

이수호 80년에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탄압이 더 세지고, 어려운 80년대를 비합 상태에서 돌파하고. 드디어 88년에 다시 합법성을 확보한. 그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숙희 언니들이 초기에 노조를 만들었다면 저희는 노조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시기에 활동했고, 80년대는 노조가 없는 곳에서 노조를 만들어 냈어요. 80년대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세대예요.

유정숙 어느 순간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지만. 저희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세대이고. 이숙희 씨가 활동한 시대는 조직 확장 이런 활동을 하고. 승숙이 같은 경우에는 두들겨 맞기까지 하고. 구속은 되지 않았었나요?

이승숙 구속은 안 되었어요. 구류는 며칠 살았죠.

이숙희 잘 도망가서. (웃음)

이수호 경찰서까지는 갔죠.

이승숙 경찰서는 많이 갔었죠.



정인숙

어머니가 지도자였어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도력이 좋은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 그런 부분이 대단히 훌륭하셨어요.

정인숙 그런 걸 보면서 조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조직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한 것만 싸우고 끝났다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청계노조가, 지금도 청계노조가 있어야 하는데 의류노조지만요. (웃음)

2.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환경

이수호 어쨌든 본인 소개 겸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와 어려웠던 점들. 이소선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대체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본격적인 추억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는 한숨 쉬어 가는 차원에서 그때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실은 어떠했는지? 선생님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여성 봉제 노동자들의 실상을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인숙 선생님은 약간 다르지만 세 분은 현장 노동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현황이 어땠는지. 예컨대 가정환경을 보면 동생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여성들이 많았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대체적인 연령대와 교육 수준은 주로 15세 전후로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했는데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였는지 아니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강요가 있었는지. 또는 타향에서 온 노동자들의 생활상은 어땠는지 당시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살기 위해서 도시로 진출하는 과정 등.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경로로 봉제 산업에 오게 되었는지, 또 여성이 주로 택하는 직업군 중에서 봉제 노동과 다른 노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컨대 버스 차장을 비롯한 여러 직업군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로서 특히 어려운 환경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어

야간에 귀가하는 부분이나 여성 봉제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 임신, 육아,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생각나는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숙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고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평화시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입학금을 안 해 줬어요. 엄마가 제가 학교에 가게 되면 동생 둘이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어요. 지금은 남녀평등 시대에, 오히려 딸이 더 좋다고 하지만 제가 살던 시대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북에서 사시다가 8·15광복 후에 월남하셨기 때문에 친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셋이었는데 제 바로 밑이 남동생이었어요. 아들을 공부시켜야 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 취직하려고 하니 취직할 곳이 없잖아요. 중졸이 어디 가서 취직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웃집에 평화시장에 다니는 언니가 있었나 봐요. 그 언니 엄마 말이 ‘우리 딸이 시다가 없는데 평화시장에 가서 기술만 배우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우리 딸 따라다니면서 기술 배워라’라고 했어요. 싫었지만 그냥 한 번 따라가면서 평화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66년도 5월쯤 평화시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긴 복도 가운데 드문 드문 형광등이 하나씩 있고, 굴이나 터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양쪽으로 공장들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나 하면서 들어가서 봤는데요. 지금은 전기다리미나 스팀다리미를 쓰잖아요. 그 때 난방을 할 때였어요. 복도에 연탄불을 놓고 조그마한 쇠덩어리를 거기 연탄불에 올려놓아요. 그게 달구어지면 빈 곳에 넣어서 썼어요. 심지를 붙인다거나 하면서 사용했는데요. 처음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밀어

넣어서 제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미싱 사한테 혼나고, 손은 다 데고. 첫날 갔다 온 이후에 울면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미싱사가 데리러 왔어요. 매일 아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해졌는데요.

제가 지금도 이름이 안 잊히는데요. 그때 평화시장에 상호가 ‘국제사’라고 성인 남방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사장님 집이 우리 집하고 가까웠는데 충신동 시장 있는 데였어요. 거기 공장장이 집에 오면서 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저는 능숙하게 일을 하게 되었죠. 또 공장장이 집에까지 데려다줬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도 학교에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아저씨 친구 중에 회사 하는 사람도 있으니 야간이라도 다닐 수 있게 자기가 주선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공장장님에게 다 말했다더니, 그 공장장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애는 공장에 다닐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취직을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희 엄마가 ‘애가 벌어서 동생들이 학교를 가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그때처럼 엄마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으면 제가 평화시장에 다니지 않았겠죠. (웃음)

이수호 오늘 여기도 안 계셨을 수 있겠네요. (웃음)

유정숙 네. (웃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보통 2~3년 시다를 해야 미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년도 안 되어서 미싱 기계로 단추를 다는 거예요. 저보고 기계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만진 지 10개월 된 후부터 미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미싱사들이 ‘너 그거 하면 기술 못 배워. 옷을 만들어

야 기술을 배우지, 단추만 달면 계속 단추만 달기 때문에 기술이 늘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랑 같이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수호 일을 잘하니까?

유정숙 네. 재단사의 처형이 미싱사였어요. 그래서 보조로 맞춰 준 거였죠. 그렇게 그 아주머니랑 1년 반 정도 일하고 나니까, 거기서는 기술을 익히면 능률이 오르니까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안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보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혼자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공장장이 그렇게 해 줬어요. 2년 조금 지나서 그냥 혼자 미싱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수입도 좋아지고 그랬어요. 그때 시다 월급이 3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시다를 2년, 3년 하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다로 1년, 2년을 해도 3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 월급이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처음 들어왔는데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돈인가 했지만.

그렇게 조금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저는 그 환경에서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 이사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공장의 사장님네 집에 세를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일하라고 하고. 그렇게 사장님 집에 살면서 그 집 일도 하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노조를 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사장님이 노조에 가지 못하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노동조합에 나가고,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입시키니까 저희 엄마한테 ‘노동조합은 깡패 집단이니까 딸 못 다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엄마는 안 듣는 거죠.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일요일에 쉬면 친구네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노조에 가거나 교육받

으러 가면서 거짓말쟁이로 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평화시장에 갔을 때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이었는데 노조를 알고 아카시아회 모임을 하면서부터는 '깊은 터널을 벗어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노동조합에 관계하면서 살았죠. 저는 얘기했다시피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이승숙 제가 동신상가에 있었잖아요. 노조에서 관할하는 8개 상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제가 동신상가에서 3년을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평화시장에서 잠옷과 와이셔츠는 기술은 잘 안 쳐줘요. 남성복과 대인복 기술자를 최고로 쳐주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대인복 객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기술을 배우고 미싱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중부시장 쪽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저희 때는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었고, 대체로 17세에서 20세 초반까지의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중부시장의 경우에는 닭장이라고 했어요. 평화시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부시장은 기숙사를 따로 안 얻어 주고 다락을 내어서 거기서 재웠어요. 평화시장은 다락에서 재단했잖아요. 중부시장은 다락에서 잠을 재운 거죠. 제가 들은 피해만 해도 많아요. 성폭행당하고,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들 중에도요. 저희가 그때 추석 때라서 거의 15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두 시간씩 자고요. 그때 처음 타이밍이라는 것을 먹어 봤어요. 나중에는 몽롱해서 내가 가위질을 하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가 밤



유정숙

우리 노동자들의 어머니, 전태일의 어머니인 한 여성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승리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졸고 있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재단사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쪽 지역에 많았어요. 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노조에서 관할했던 곳 외에는 조건이 더 열악했어요.

유정숙 평화시장은 그나마 괜찮았던 거네요.

이승숙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을지상가, 동신상가, 동문상가, 통일연쇄상가, 신평화시장, 이렇게 8개 상가 관할 지역은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도 하나까요. 그런데 중부시장 주변은 너무 열악해서 제 또래 아이들이 고생했죠. 자취방도 변변하게 없이 공장 다락에서 자면서 일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재단사들의 밥까지 해 주면서요. 거기서 또 더 소규모인 거예요. 평화시장은 10명이나 20명 이상 규모였다면 거기서 10명 이하의 규모였어요. 더 하청의 하청이었던 거죠. 지금은 거의 창고로 변했는데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공장이 엄청 많았어요.

이수호 그때 청계피복노조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은 피해가 덜했고 그나마 다른 곳은 더 열악했다.

이승숙 벗어난 곳은 더 열악했죠. 평화시장 자체도 열악했지만 그 외는 더 열악했죠. 제가 그때 18~19세였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 데 없으니 공장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월급도 많이 때리고요. 저희 야학 선배들이랑 쫓아가서 월급 받아 주고.

이수호 월급 받아 주는 것이 노조 일이었잖아요.

이승숙 네. 저희가 가서 따져서 받기도 했어요.

이수호 이숙희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이숙희 저는 유정숙 언니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는 주로 평화시장하고 동화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노조 영향력 아래 있었죠. 그때 제가 총격 받았던 것은 재단보조들 언행이 나빴어요.

이수호 재단보조가 남자죠?

이숙희 네. 제가 평화시장에 들어갔을 때 욕하고 때리는 재단보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노조에 갔는데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사람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예요. (웃음) 그 형님도 노조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예요. 제가 처음에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여기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잠깐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워낙 공장 분위기가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실향민인데요. 제가 공장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사업에 점점 실패하시면서 ‘내가 고향에만 가면 내 자산이 거기 있어’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었어요. 나중에는 그게 극복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졌고. 그러면서 신당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평화시장이랑 아주 가깝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자발적으로 갔어요. 일 년만 고생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 말에 혹했어요.

그 전에는 명동 양장점에 갔는데요. 거기서 비전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맨 위 제자, 중간 제자, 밑 제자로 시다가 3명이 있는데요. 미성사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그리고 기술도 안 알려 주고 눈치껏 알아서 따라 다녀야 해요. 그렇게 일하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 들었을 때 평화시장은 일 년만 일하면 된다는 말에 혹해서 평화시장에 왔는데... 노동환경이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이밍 먹으면서 밤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장들이 싫었어요.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추석 때 제 친구들 3명이 같이 미싱보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미싱사들보다 우리가 옷을 더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때 저희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이번 일 끝나고 추석이 지나면 15,000원은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들어와서 잘 못하는 미싱사들도 15,000원을 줬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요. 그런데 그대로 7,0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감해졌죠. 사장한테 면담 요청을 하고 월급을 15,000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우리 집 떠났감이다.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칭찬만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하더니만 월급 올려 달라고 하니깐 '야! 한 군데 들어와서 돈 벌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기술이 늘고 돈을 벌어. 너희들처럼 월급 올려 달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거지가 돼 깡통밖에 못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신뢰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거부감이 든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만두자고 해서 다 같이 관두고 동화상가로 옮겼어요. 제가 노조에 다니기 전에 있던 일이에요.

아마도 그 일 때문에 어쩌면 더 노동조합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공장 환경은 자기 공장에서 미싱을 하는 애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서 무한히 굴리려고 했던 사장들의 사고방식을 경험한 것이죠.

유정숙 심지어 평화시장 특성이 한 사업장에 몇백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10명에서 20명 또는 30명 정도로 소규모였잖아요. 공장 아래 가게가 있고, 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다른 사장



전태일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된 청계노조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이승숙, 이숙희, 유정숙, 정인숙

님을 만났어요. 아마 조합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월급을 안 주냐’고 이 이야기를 하니깐 ‘재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돈 안 줘도 된다고. 기술 배운 강사료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왜 그 돈을 줘’라고 말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어요. 공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한테 기술을 익히게 했으니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숙희 그런데 사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을 시킨 것이죠. (웃음) 제가 늘 교육할 때에도 말하지만 평화시장 시다는 견습공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견습공은 과정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술자잖아요. 가위질하고, 다리미질하고, 단추 달고, 그걸 스스로 습득한 거잖아요. 그것을 마치 미싱을 가르쳐 줘서 미싱 한 것인마냥... 미싱에도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미싱 망가진다고요. 그런 걸 다 눈치껏 해야 되고.

이승숙 그런데 평화시장 시다는 기술자예요. 그야말로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독립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미싱사가 완벽하게 미싱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유정숙 평화시장에서는 독립된 사람이 옷을 완제품으로 만들거든요. 라인 작업하는 곳이 있었어요. 큰 곳에서는 라인 작업을 하니깐 아무리 기술자가 있어도 옷 하나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 곳에서 시장에 있는 미싱사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시간이 정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월급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라인 작업을 하니깐요.

이수호 정인숙 선생님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정인숙 제가 그때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모인 여성 노동자들을 3만 명 정도로 추산했어요. 70년대 초였지만 정말 집단으로 많이 일했어요. 그때 회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일제 강점기부터 평화시장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초기에는 기술 배운다는 의미로 여성들이 일했지만 가난해서 돈을 벌러 왔는데 월급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제대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청계천에 사창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있을 때도 구석에 있긴 했지만, 잘 몰랐는데요. 낮에는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화시장에 다닌다는 것을 다들 숨기려고 했어요. 자기가 평화시장 노동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다.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고, 그 당시 전국의 옷 중에 80퍼센트가 평화시장에서 만들어져서 도매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이 없으면 이 사회가 발전할 수도 없고 굴러갈 수도 없다. 노동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잘못된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단사가 사장이면서 재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수호 남자들이죠?

정인숙 그렇죠. 공장장이나 재단사는 거의 다 남자고 사장하고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여성들은 대부분 시다나 미싱사였어요. 시골에서는 사람들은 집이 없으니 낮에 일하고 다락방에서 먹고 자고. 그 당시 저녁 밤에 친한 조합원들 방에서 잤어요.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조합원은 여러 번 임신을 해서 아이를 지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저도 나이가 어렸었는데요.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니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더 똑똑해지고 더 당당하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은 내 죄가 아니다. 그러니 당당해져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용기를 많이 주고. 이런 어려움을 같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는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려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웃음)

여성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는 젠더 의식도 없고 그런 용어도 모르고, 남녀 불평등 같은 그런 사안을 크게 볼 수 없었지만요. 굉장히, 성적인 문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또 그런 관계로 묶이면 월급도 잘 못 받았죠. 인권적인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노조에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나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숨기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았죠.

이숙희 사전 질문지를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봉제 산업에 유입되는 이유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때에도 다른 원풍이나 동일 같은 원단 짜는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중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시장 같은 의류 만드는 곳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제일 손쉽게 들어갈 수 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손위에 아들 그러니까 오빠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손아래 딸들이 모두 공장에 들어와야 했던.

유정숙 그게 굉장히 많았어.

이숙희 어떤 친구가 그런 경우예요. 그다음은 사회 시선이 나뻐잖아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 갈 때 모양을 내려고 옷을 바꿔 입은 게 아니라 공장에 다니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옷 위에 월남치마 같은 것을 입고 일하거나 갈아입고 일하거나. 나갈 때는 정말 열심히 털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딘가에는 실밥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같이 집이 가까워서 걸어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먼 곳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정숙 그 당시 상황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면 밤 10시나 11시에 일이 끝나요. 저는 집이 가까운 데다 공장에 다니는 게 싫으니까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시 전에 집에서 나와요. 일찍 나오는 거죠. 남보다 부지런하고 일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찍 나온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늦게까지 일하다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없고, 일터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죠. 생각도 좁아지고, 편협한 성격으로 변할 즈음에 전태일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수호 그래서 청계피복노조도 만들어지고 또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잘못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청계피복노조와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어머니가 계셨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조금 쉬었다가 올해가 어머니 10주기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휴식)

3. 어머니와의 인연과 추억

이수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씀들도 잘해 주시고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실제 봉제 노동자들의 실태, 그 당시 상황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소선 어머니와 그 당시 여성 조합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께서는 당시 많은 여성 봉제 노동자들과 같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셨는데요. 그러다 전태일의 이름과 청계피복노조의 존재를 알게 되고,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소선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투쟁의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아카시아 소모임과 노동교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침 기념관에서도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던 시절의 자료를 유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청계피복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로와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첫 만남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어머니의 첫인상, 어머니와 여성 조합원과의 관계, 창동 집,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기억나는 일,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카시아회 조직 과정 및 인상 깊은 활동 내용, 여성 모임 필요성 인식의 계기, 명칭의 의미와 아카시아회 활동으로 인한 변화, 파생 소모임 및 활동 등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교실에서 진행한 여성 관련 교육 중 인상적인 활동, 여성 보건의 관련된 내용, 이성 교제, 양육 상담 등과 이소선 어머니의 역할. 또 노동 및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어머니와 관련이 깊은 여성 조합원들과의 활동 내용 등을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숙희 위원장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어머니를 가장 오랫동안 모셨으니까요.

이숙희 제가 1972년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었고, 저희 팀 이름은 ‘네잎클로버’였어요. 제가 노동조합에 처음 왔을 당시는 어머니가 노동조합에 매일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약간 슬퍼 보이는 표정? 그런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그때 노동조합에 어머니를 못 오지게 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 정부 당국도 관련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합 활동을 시작한 저희로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머니를 못 오게 하는 것이지? 이곳은 그분의 아들 전태일이 죽음으로서 생긴 노조인데 왜 못 오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간부들에게 의구심이 생겼었지요.

그때 팀을 만들면 상근 간부들이 팀을 맡아서 지도했는데요. 이승철 사무장이 지도한 팀이 네잎클로버였어요. 그래서 저희를 창동 어머니 집에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어머니 집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 집보다도 더 이상한 동네... (웃음) 차에서 내린 후에

한참 산길로 가다가 밭도 있는 곳을 걸어갔는데요. 진짜 납작한 판잣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동네로 가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셨는데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집에서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음식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밥상에 또 충격 받았어요. 옛날 밥그릇, 높이가 꽤 올라오는 주발에다가 밥을 퍼주셨는데요. 주발 끝보다 더 가득 밥을 퍼 주신 거예요.

이수호 고봉이라고 하죠. 고봉.

이숙희 저는 그런 밥그릇을 처음 봤어요. 저희 집에선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지?’ 했는데 어머니한테 지적받았어요.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팍팍 먹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호칭이 안 나왔어요.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지?’ 했어요. (웃음) 제가 까탈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호칭 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도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자리가 된, 쌍문동 뒤쪽 계곡으로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느 순간에 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밖에 계신 분을 만나러 갈 때 저하고 순자하고 원섭이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 집, 함석헌 선생님 집, 장준하 선생님 집 그런 곳에 저희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 데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모두 전태일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안타까워하시고, 인정하시느냐’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함께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노동교실 싸움이었어요. 1975년 2월 7일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가 1973년 5월 21일에 노동교실 개관식을 하고 개관식이 끝나자마자 뺏겼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그때 사용자 측에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간부 4명 해고, 전임자 임금 안 주기, 노조 간부 사업장 방문 못 하게 막기, 마지막으로 결정적이었던 건 지부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이 ‘간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조합원이 힘을 합쳐서 간부를 지켜야 저런 식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노동교실 찾기 싸움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창신동 꼭대기에 있는 박형만 씨 집에서 모이고, 다방에서도 모이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복실이를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여관에서 회의하고 밤새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소고기를 사 온 거예요. 여관 부엌을 빌려서 대파 넣고 소고깃국을 끓여 주셨대요. 잊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싸움이 있기 전에, 내일이 결전의 날이라면 오늘 어머니가 고기를 사서 대파를 듬성듬성 썰어 넣은 고깃국을 끓여 주셨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확실히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우리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무서울 줄 아니까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은 1975년 12월 23일 날, 시간 단축 때문에 1박 2일로 농성을 했어요. 그때 중부경찰서 장 계장이 군복 차림에 권총까지 차고 왔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조합원도 아닌데 왜 저기서 설치고 있어. 당장 끌어내!’라고 외쳤어요. 저희는 군복 입고 왔으니 얼마나 떨려요, 거기에 권총까지 차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나는 노조 조합원 아닌데 여기 있어. 그런데 너는 경찰이 뭐 하러 여기 와서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있어? 너 먼저 나가!’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어머니다’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여름에 한탄강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조합원이 그 동네에 힘쓰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저희는 혈기가 넘치니까 싸워야 한다, 저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처음 와서 몰라서 그랬으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수호 마을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숙희 네. 저희는 조합원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는 저희가 잘못된 게 없으니 싸워서 저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저희에게 보여 주시고, 저희가 늘 여러 가지 싸움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몰려서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앞에서 막아 주실 거야’라고 신뢰하게 해 주셨죠. 그렇게 어머니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쪽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 1977년 9월 9일. 어머니가 7월에 잡혀가셨잖아요. 9월 9일에 노동교실을 다시 뺏길 때 그때 싸우러 들어온 조합원들 중에는 중견 조합원도 있었지만 나이 어린 조합원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겁을 내지 않고 어머니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노동교실을 뺏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건물에 들어와서 겁내지 않고 싸웠던 것도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건 어머니가 구속된 후에 힘이 짝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월 9일 ‘이번 싸움은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싸움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 싸움은 제가 주도한 싸움이 아닌데 사

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줄 알아요. 사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문 열어 달라고 말한 조합원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제가 그때 상근자였는데요. 나이 어린 조합원들이 오는데 ‘애들을 두고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잠깐의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싸운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상근자인 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일 힘이 빠졌던 때가 어머니가 안 계셨던 첫 싸움에서 많이 느꼈어요. 역시 깨졌고 다 구속되었죠.

어머니와 저희와의 관계는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고스톱을 알려 줬어요. (웃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 어머니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화투 가져와라. 화투 치자’고 하셨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라는 것이었겠죠.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용인에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저를 다시 불러준 사람이 유정숙 언니였어요. 유정숙 언니와 제 둘째 아들이 용기를 줘서 제가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소원을 들어주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 소원을 말할 수 없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말을 못 했는데요. 활동 중에 어머니와 저와는 좋은 관계도 있었고 안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살짝 가졌던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었어요.

이수호 어머니를 사무실에 못 나오게 한다든지, 경찰이 ‘당신 왜 여기 있어?’라고 한다든지, 그 당시에 ‘제삼자개입금지법’이 있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잡혀가는 잘못된 법 때문에, 그

명분으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어머니가 사무실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조합원들까지 생긴 것이죠.

정인숙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삼자개입금지법’이 있기 전이에요. 당시 상급 조직이 전국연합노동조합이었고, 그 위가 한국노총이었어요. 한국노총에서 초기에는 지부장도 파견을 했었어요. 경찰이나 기관에서 계속 한국노총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한국노총에서 우리 노조 간부들에게 어머니 못 나오게 하라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부녀부장이니 눈치만 보고 분위기만 알지만요. 어머니를 사무실 못 나오시게 하라는 관의 압력이 심했던 것이죠. 상급 조직에서 자꾸 그런 명령이 내려오니까 일부 상급 간부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힘들었고, 간부도 힘들고 그랬었죠.

그때 초기에는 조합비가 없었어요. 그러니 노조에 월급이나 운영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헌옷 주어다가 신당동 시장에다 팔아서 그 돈으로 노조 간부들 라면이나 밥을 먹게 해 주셨어요. 초기에 그런 일들을 계속하셨죠.

저는 모든 면에서 어머니 말씀이 진리예요. 어머니는 진짜 운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웃음) 진짜 평범한 아주머니 인데요. 그때 어머니가 40대 초반으로 아주 젊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 한마디씩 하는 것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는 조합원 아니지만 너는 조합원이야. 너는 왜 왔냐’라는 것처럼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옳은 말씀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씀에서 배움을 얻었고 힘이 되었어요.

초기에 간부 모임은 창동에서 많이 했어요. 할 곳도 없고 따로 장소도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창동 가면 밥이 맛이 있어요. 전순옥이 음식을 그렇게 잘해요. 엄마는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순옥이가 음식을 하죠. 음식이 맛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밥을 먹으며 중요한 모임을 많이 했죠. 어머니가 지도자였어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도력이 좋은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 그런 부분이 대단히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한창 탄압 시기에는 어머니가 낮에는 안 오시고, 그 외 시간에 있을 때 일부 간부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 결속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부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되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암암리에 했죠.

어찌 보면 어머니는 보통의 한국적인 어머니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싸우려면 먹어야 하니까요. 먹는 것에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셨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가깝게 용기도 많이 주시고, 소모임 활동하면서 여성 조합원들이 불어나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제대로 운영되겠다고 좋아하셨고, 칭찬하면서 힘을 많이 주셨어요.

유정숙 저는 어머니를 처음 그렇게 인상 깊게 만난 이후에 늘 찾아가서 뵈고 그랬으니까 친밀한데요. 점심시간 땡 하면 얼른 밥 먹고 올라가니까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첫인사가 ‘미스 유 밥은 먹었나?’였어요. (웃음)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적인 어머니상이면서도 사람을 품는 성품을 지니기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체구가 작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힘이 있고 ‘너희들은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 금쪽같은 아들을 잃고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 간부들이나 조합원들 그리고 노동자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신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가톨릭 신자

가 되긴 했지만요. 바로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이수호 신앙의 힘.

유정숙 네. 신앙의 힘이 어머니를 더 강하게 해 줬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그때 노동자들 중에도 점심을 못 먹는 시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복지후생식당’을 차리게 되고, 급식으로 국수를 나눠 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동자들이 먹을 그릇 수를 줄이는 등 꼼수를 부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조합원들이랑 어머니가 팔 걷어붙인 채 직접 국수를 삶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먹였던 일도 기억이 나요. 저는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숙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한테는 항상 ‘미스 유’라고 불렀어요. (웃음) 항상 왜 그러실까? 저에게는 거리감을 두신 것은 아니었나 생각했어요. ‘정숙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어요.

이숙희 더 존중해 주신 것이죠. (웃음)

정인숙 저에게는 맨날 언니라고 불렀어요.

유정숙 저한테는 맨날 ‘미스 유’였어요. ‘언니’도 가깝잖아요. 나한테는 거리감을 두셨었나? (웃음)

정인숙 거리감이 아니라 ‘미스 유’가 상징이었어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표시를 위해서 상징해야 하니까요.

이숙희 언니들은 20대에 만났고, 우리는 10대에 만났으니까 우리를 애들로 생각하신 거죠.

유정숙 어머니를 마지막에 떠나보낼 때, 그렇게 힘이 있던 분이 중환자실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누워 계신 것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병실에서 나오실 수 있을까 했어요. 그때 마침 저도 건강이 안 좋아 수술을 했던 터라 병원에 잠깐 가서 한 번만 뵙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아파요. (눈물)

이수호 우리 승숙 씨도.

이승숙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성장에서 너무 강렬하게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높게, 가까운 어머니가 아니라 우러러보는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어머니가 구속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투쟁 현장에서 뵈었죠. 70년대에는 어머니가 청계노조 현장을 다독이고 가셨다면, 80년대 이후에는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80년대 초중반에 분신행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영안실에 가서 싸우고, 유가족들 다독여 주시고, 힘내라고 해 주시는 모습을 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투사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창동에서 모임도 가지면서 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투쟁 현장에서 어머니랑 같이 전경들하고 싸우고 부딪치다 보니 언니들처럼 개인적으로 어머니랑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늘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하다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생기면서 창신동에서 어머니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명절에는 같이 고스톱도 치면서... (웃음)

어머니에게 느낀 것은 대단한, 영민하시다고 할까요? 젊은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대처라든지, 말씀이 진짜 매번 놀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시는 모습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젊은 사람이 못 따라가요. 특히 고스톱에서 일인자예요. (웃음)

이숙희 다 알고 있어요. 상대가 무슨 패를 가졌는지.

이승숙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해요. 저희는 물론 고스톱을 잘 치지도 못하지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창신동 청계노조 사무실에서 구로동맹파업을 준비했던 것처럼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주로 남성들이 많이 구속되었죠. 김영대 위원장이나 만호 오빠나 모든 분이 구속되었을 때 굉장히 살벌한 상황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의 중심이 되고, 비공개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머니하고 안 맞기도 했었죠. 나중에 어머니가 ‘너희들 참 고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알고 계시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켰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구나 했어요.

정인숙 80년대 이후에 분신 노동자나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 어머니랑 병원에 많이 방문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가서 그분들을 보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제발, 이제 죽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는 어머니하고 개별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초기부터 가시기 직전까지도 밖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번은 ‘어머니 다시 태어나셔도 운동하실 거예요?’ 하니까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싸워 오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건 신앙의 힘도 크다고 봐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아들이 부탁한 것, ‘어머니가 이제 제 친구와 함께 싸워 달라’는 말들. 그런 것 때문에 그 힘으로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이승숙 저는 20대에서 30대 때 가장 열심히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어머니를 볼 때는 큰 산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동년배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창신동 사실 때 가끔 찾아뵈었을 때는 제 마음도 그냥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어머니가 늘 옆에서 크게 버텨 주실 거로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매우 아프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어머니가 살아온 생애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당연한 투사로서 기억된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식을 잃고.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숙희 어머니는 저희가 싸울 때마다 기둥이 되셨고 방패막이가 되셨잖아요. 그런 어머니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11월이 되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받혀 올라와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니까 선배님들이 밤새 주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부터는 추도식이 끝나고 나면 버스를 창동 집으로 돌려서 창동에서 밤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가 추도식 끝나고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게 저희 마음이었기 때문에. 밤새 술 마시고 젓가락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도 노래 부르시라고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저희에게 다 같이 불러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어머니 조금 힘이 나시면 그때 가기로 해요’라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다녀갔던 날 쓰러져서 못 일어나신 거예요. 어머니는 투쟁의 선봉이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정에 웃놀이하고 사진도 찍고 했잖아요? ‘미경아, 너 노래 잘하는데 나 좋아하는 노래 불러 봐라’ 하면서 노래도 시키고, 어머니도 노래 부르셨어요. 어머니 진짜 음치셨거든요? (웃음)

이수호 어머니는 무슨 노래 좋아하셨어요?

이숙희 제가 들었을 때는 <찹레꽃>을 좋아하셨는데요. 노래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애들이 기억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승숙 저는 그 노래 한번 들어봤어요. ‘언제까지나~’.

이숙희 아, 헤어지지 말자고?

이승숙 그 노래 한번 들었어요.

이수호 <해운대 엘레지> 그것도 좋아하셨고. 찹레꽃은 장사익 <찹레꽃> 말고, ‘찹레꽃 붉게 피는~’.

이숙희 그런 부분들도 저희에게 보여 주셨던 어머니셨어요.

정인숙 저희와 활동할 때에는 노래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수호 두 분은 조금, 그 당시에는 연배가 높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컸지만 언니라고 부르거나 미스 유라고 부르거나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숙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부녀부장이라고 불렀어요. 사무실 일 끝나고 나서는 조합원들이 ‘언니’라고 부르니까요. 옛날에 저희는 활동하면서도 ‘언니’ ‘동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언니’라고 부른 것이죠.

이수호 언니 같은 역할과 당신에게도 언니 같은 존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스 유는?

유정숙 (웃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하세요. 어디 나가서 외박하는 거 금기하고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늦게라도 집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동에서 잔 적이 몇 번 안 돼요. 창동 가면 어머니가 밥해 주시는 거 먹고, 여럿이 먹으면 끝맛이고. 또 순옥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순옥이가 고추 삭힌 거 묻혀서 주면 고추 하나지만 정말 맛있어요. 창동에 들어가면 그렇게 밥이 맛있었어요.

이숙희 그 반찬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승숙 저는 매실 언니가 해 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이숙희 매실이도 음식을 잘해. 어머니 집은 음식을 잘해.

정인숙 어머니가 담배를 계속 피우셨는데요. 담배 힘이 컸던 것 같아요. 화나는 이야기, 탄압받았던 이야기도 하시다가, 담배 한 대 피우시면 그게 많이... 나중에 창신동에서 아프실 때도 담배 피우셨잖아요.

이숙희 맞아요. 많이 피우셨어요.

정인숙 담배를 조금만 피우셔야 한다고 말했더니 ‘담배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수호 조금 대치되기도 하지만 신앙의 힘과 담배의 힘. (웃음)

정인숙 제가 볼 때는요.

이숙희 저는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게 이해가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희에게 숨기려고 돌아서 피우거나 다른 방에서 피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워야 하는지. 그래서 ‘어머니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도대체 담배 왜 피우시는 거예요?’ 했더니 ‘가슴이 꼭 막혀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내려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전에 보니까, 자식을 두고 식모살이 갈 때 기차 안에서 담배꽂초를 주어서 피우다가 졸도하셨는데요. 그게 처음 담배를 피운 것이더라고요. 아마 가슴에 맺힌 게 내려간다고 해서. 저도 실험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웃음)

4. 노동 현장 및 노동운동의 성차별

이수호 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쉬어 간다는 의미로, 아까 대체로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노동 현장 및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차별. 예컨대 봉제 노동자들 사이에서 남성들의 역할은 주로 경영을 하거나 재단사나 이런 일이었고, 여성들은 미싱사나 시다 같은 일이었고. 성차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는 대체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특히 그 당시 만연했던 성차별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은 어떠했는지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숙 그때 작업 현장에서는 재단일은 기술도 필요로 하는 것이었지만 힘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필이라고 하죠? 운반할 때 보면 남자들은 어깨에 둘러메고 나르는데 저희는 그걸 들지도 못해요. 재단도 나중에는 기계로 했지만 처음에는 손칼로 재단을 했어요. 남지들도 하기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감히 생각도 못 했죠. 그때 신설동에 노라노 양재학원이 있었어요. 잠시 몇 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재단 패턴 뜨는 것을 배워 볼까 하고요. 그랬는데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겠더라고요. 현실에서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미싱 기술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별은 업종에 따라서만 있었지 특별히 저희가 차별을 받는다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숙희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언니가 말한 대로 무겁고 힘든 일이니까 당연히 힘 좋은 사람이 한다였어요. 그런데 가게를 하면 달라지잖아요. 부인이 가게를 전담하게 되고, 돈 관리도 주로 부인이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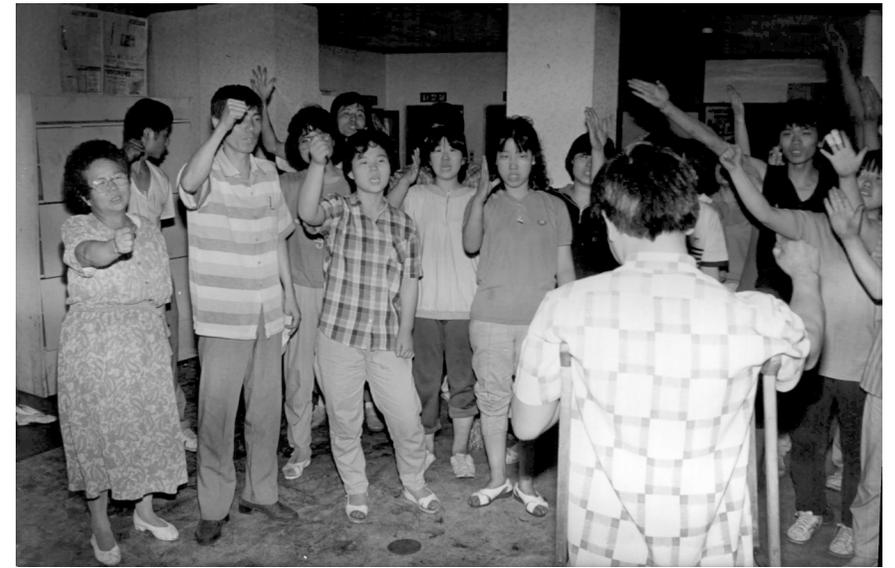
남편은 공장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분화되니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성차별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했어요.

이수호 역할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까 승숙 씨가 이야기했듯이 평화시장보다 더 열악한 주변에 있는 작은 공장들, 특히 다락방 같은 곳에서 기거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70년대였고, 8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더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여성적 관점이라든지 그런 의식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숙 80년대에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지만 드러내지 않았어요. 일하는 노동자들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 당시 합법성 투쟁에 매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이 억압당하는 문제라든지. 본인들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까 힘적인 것에서도 역할이 분담되기도 했지만, 권위적인 것에서도 남자가 공장장을 해야 한다든지 재단을 하면서 사람을 부리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80년대까지도 그런 것 자체를 스스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하면서도 합법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합법성 쟁취에 조금 더 매진하게 되었죠.

이수호 성차별 또는 여성이 당하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들 때문에 묻히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인숙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역량도 없었고, 그 당시 문화도 가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복구 투쟁에서 이소선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침, 1977, 전태일기념관

부장적이었으니까요. 은행에서도 결혼하면 다 잘리고, 노동계에서는 그런 것을 바꿔야 한다는 시발점으로 토론하는 차원 정도의 문제 제기만 있었어요. 제대로 된 젠더 의식은 없었고,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긴 것이 1998년이에요. 2000년 다 되어서 생겼기 때문에 70년대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어려웠죠.

그래도 다 느꼈어요. 노동계에서 남자들은 대체로 관리자 내지는 억압하는 가해자였고 여성들은 당하는 피해자였어요. 큰 공장의 조합 간부들은 남자가 거의 다 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문제 제기를 못 했죠. 일반 조합원이었던 여성들은 단합하고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요. 하지만 남성들은 그게 안 되었죠. 탄압하거나 배신하고, 기업주에 붙어 가죠. 주로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여성들이 젠더 의식을 드러내고 운동을 통해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단결이 잘되었어요. 투쟁이 잘되는 곳은 다 여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힘으로.

이수호 조합원의 70~80퍼센트가 여성이고, 남자는 많아야 20~30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조차도 간부는 대부분이 남자였죠. 청계피복노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유정숙 처음에 부녀부장 한 사람만 여성이었어요.

이승숙 위원장이 여성이었던 적이 직무대행으로 딱 한 번이었어요.

이수호 청계노조도?

이숙희 네. 저희가 여성 지부장을 뽑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이수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여성이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초로 여성 지부장을 선출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박명옥 씨? 그에게 출마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숙희 그때가 1976년도였는데요. 우리 노조 간부 중에 한국노총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전태일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우니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최종인 지부장은 ‘지금까지 같이 해 온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본인을 비롯해서 전부 사퇴를 하겠다’가 된 거예요.

원래 조합원이 생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부녀부장 빼면 다 남자였는데 ‘이 선배들이 다 그만두고 나면 누구를 지부장으로 세워야 하나?’ 하는 고심에 빠졌고. 그때 박명옥 언니가 초기부터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옥 언니를 지부장으로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박명옥 언니한테도 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가 ‘그래 박명옥 언니가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언니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세우려고 대의원 대회를 열게 됐죠.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 언니가 회의 중간에 의장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데 언니가 너무 긴장하니까 일부 대의원들이 야유를 던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더 당황하고,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언니가 내려오고 다른 사회자를 세워서 대의원 대회를 했어요.

그때 최종인 선배 측에서 이승철 선배를 지부장 후보로 호명했죠. 저희는 최초로 여성 지부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무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승철 지부장을 뽑았죠. 그런데 저하고 순자의 경우에는 원래 이승철 사무장이 지도했던 팀이었어요. 저희랑 교류가 활발해서 선배들이 다 그만두면 이승철 선배가 맡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편파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선배들이 다 그만두는데요. 그래서 말

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승철 지부장이 뽑히게 된 것이죠. 여성 지부장을 뽑는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수호 70~80년대가 엄혹한 시기였는데요. 노동자들의 성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했는데요. 그런 풍토가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더 큰 억압으로 작동하면서 말도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든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네요. 어머니나 청계피복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탈피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승숙 사용자들도 남성들 아니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하게 있었어요.

이숙희 저희가 1978년도에 또 한 번 시도해요. 여성 지부장을 세우려고요. 그런데 또 못 했어요.

5. 여성운동가 이소선의 삶

이수호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여성운동가 혹은 여성 노동운동가도 좋고요.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평가. 평가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 내지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에 대한 것이죠.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의 분신행거 이후 평범한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운동의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노동운동가로 거듭나셨습니다. 이는 여성은 외부 활동은 안 된다는 고전적인 성 역할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여성운동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어머니께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하는 형식으로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나 젠더라는 단어를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전태일 정신, 풀빵 나눔, 시대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있겠죠? 여성운동가로서 이소선에 대한 평가, 지금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돌봄,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연대한다든지. 또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 당시 함께했던 여성 조합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을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경험이나 삶에 비추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숙 씨부터 할까요?

이승숙 당시 상황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정도의 운동가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대단한 운동가로서 큰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한 어머니로서 또 한 운동가로서의 어머니를 평가한다면 감히 지금도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숙희 저는 활동하면서 한 번도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번에 어머니는 이렇게 판단하셨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하고 늘 같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의 삶은 뭐였지?'라는 생각이 별안간 들었어요.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도대체 어머니의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

렸어요. 너무 힘들었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 드리기보다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만 바랐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통념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결단을 하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 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승숙이는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이기에.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왜 놀러 가자고 했을 때 못 갔지? 조금 더 잘해 드릴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기 전 1~2년 동안 70, 80년대 조합원들이 조를 짜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같이 밥도 먹고 했던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어머니의 뜻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유정숙 (웃음) 누구한테나 소중하고 귀한 어머니셨지만요. 이 자리에서 특히, 숙희가 어머니하고 가장 가까이 친밀감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도 많이 찾고, 어머니하고 일적인 관계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여기 오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 ‘나는 어머니하고 무엇을 했지? 그래서 미스 유라고 불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했어요. (웃음)

이숙희 언니들은 기틀을 만들었잖아요.

유정숙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거인이시다. 언제나 우

리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특히 청계 식구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이셨지만 외부로는 굉장히 큰 거인이셨어요. 어머니도 처음부터 자신이 노동운동가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도 그 이전에는 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며 모든 고난을 겪고 이겨 내셨는데 어찌 보면 아들을 잃었을 때를 기점으로,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들과 사력을 다해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었던 삶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어머니, 전태일의 어머니인 한 여성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승리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인숙 저도 한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행복이 고통 속에서 나온다는 걸 체험하면서 살아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결과를 보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니까 이 일을 계속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투쟁 속에서 행복을 느끼셨고, 어머니가 강한 투쟁의 정신과 노동자를 사랑하는 힘이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잘 싸워 오셨다고 봐요. 점점 힘이 드셨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일궈 낸 사회 변혁을 보시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고 기쁨이었기에 거기에서 어머니의 힘이 나왔다고 봐요. 그 결과로 제2의 노동자들의 어머니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계시지만요. 이처럼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어머니로서 70년대부터 살아오셨던 모습이,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 정신이 미쳐서 여러 나라의 노동자의 어머니로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웃음) 우리도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웃음)

이수호 끊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혹시 김대현 작가님 조금 더 확인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대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듣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호 그런데도 못다 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하신 후 노동구술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저는 청계노조에서 일한 기간이 5년인데요. 5년 동안 있었던 일은 너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제 인생도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청계노조 이소선 어머니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스승이고, 청계노조 우리 노동자들도 저의 스승이에요.

저는 노동자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들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이 더 당당하고 노동자가 바라는 세상이 빨리 와야 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저희의 노력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다음은 미스 유. (웃음)

유정숙 영원한 미스 유인가요? (웃음) 70이 넘었는데요. (웃음)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요. 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동운동 하신 분 같지 않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니까 ‘강하고, 강한 표현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그게 다 노동운동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마음속 깊은 곳에 부드러움과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노동운동도 우리가 서로 노동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운동권에 들 수 있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사람을 존중하는 노동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운동 하는 후배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나 혼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소선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함께, 같이하는 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후배들에게요.

이숙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 발끝도 못 따라가요. 저도 언니들처럼 유하고 유머러스하게 변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돼요. 지금 후배들이 다시 노동조합을 한다고 봉제인지회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언니들도 다 가입해야 해요. (웃음) 제가 거기 조합원이거든요? 조합원 역할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죠. 언니들도 할 말이 많고, 저도 그렇고 승숙이도 그렇죠. 저희가 따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념관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전태일 동지와 어머니를 잊지 않아야죠. 어머니가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바랐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승숙 제가 20세 때 청계 모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날 80년 4월 농성 때 어머니 말씀으로 인해서 전태일 선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전히 내가 노동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소심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도 늘 전태일 선배님은 저의 길잡이였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평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어머니가 몸소 실천하셨고 살려 내셨잖아요.

그런 두 분의 삶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내가 선택을 너무 잘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아까 정인숙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서 나는 커다란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밀접하지는 않았어요. 싸움 현장에서 항상 같이 있었으니 ‘어머니는 그냥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야’라고만 바라보다가. 그 전에도 느꼈지만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머니가 살아오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큰 어른이 너무 일찍 가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수호 긴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노동자로서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노동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와 달리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소선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무척 새롭고 귀중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작가님, 촬영감독님,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스태프 여러분, 전태일기념관 담당자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노동구술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숙



이승숙



이숙희



왼쪽부터 이승숙, 이숙희, 유정숙, 정인숙

4부

우리들의 어머니

인터뷰 5회차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15:00



왼쪽부터 최종인, 이수호, 이승철

1. 어머니와의 인연

이수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또 만났습니다. (웃음) 코로나가 아직도 언제 물러날지 모르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을 차례가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저는 어제 1차로 맞았습니다. 다들 하도 걱정하고 후유증이 상당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큰 증상은 없는데요. 몸이 약간 무겁고 근육이 육신거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제가 잘 안 웃더라도, 원래 잘 안 웃긴 하지만 그러려니 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선 어머니와 다양한 경로로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삶과 행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제3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최종인, 이승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최종인, 이승철 선생님은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로 삼동회 활동을 같이하셨고, 열사의 분신항거 이후에는 다시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지이자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어머니의 또 다른 아들로서 어머니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소선 어머니를 중심으로 두 분의 기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 공유하는 기억 또는 각자의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사회를 맡은 이수호입니다. 종인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최종인 최종인입니다. 어머니와 40여 년 동안 근접한 거리에서 생활을 해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요즘은 재단과 관계된 일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철 저는 이승철입니다. 전태일이 죽고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서는 그다음 청계노동조합 결성할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1971년도부터 어머니 집에서 살았고, 1977년 4월 23일에 결혼하고서도 그 옆집에서 또 한 일 년인가 육 개월인가 살다가 이사 갔던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 어머니보다 더 잘 모시려고 했는데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당히 모자지간의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고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어머니가 원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데다 청계피복노조 활동도 하셔서 많은 분이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태일의 친구이자 나중에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청계피복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처음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청계피복노조설립 과정까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노동운동 현장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일상의 어머니입니다. 사회 활동이나 노동운동처럼 공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관계에서 사소하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즐겨 부르던 노래라든지 자주 해 주셨던 이야기라든지. 그렇다고 거기에 한정하지는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인 제가 어머니를 처음 만난 것은 태일이 분신한 다음인데 그때 제가 구속되었어요.

이수호 그 전에 두 분이 다 삼동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전태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저녁에 전태일의 집에 가서 가끔 회의도 하셨는데요.

최종인 그때는 멤버가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때 각자 집에 들어가 있었고. 바보회 멤버들이 전태일의 집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삼동회를 하다가 태일이 분신한 이후에 성모병원에서 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그 전에 저는 중부경찰서 구치소에 있었고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모습은 자그마하면서 강단 있고 정이 많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태일이 친구입니다. 태일이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어머니! 태일의 뜻을 꼭 어머니와 함께 이룰 테니, 어머니 담대해지시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태일이 어머니가 자식이라고 저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제 마음속에 어머니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태일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확고부동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수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종인 네. 그러다 장례식을 치르는 데 대학생장으로 하자고 했어요.

이수호 서울 법대장으로 하자고 했죠?

최종인 네. 서울 법대장으로. 그걸 어머니가 승인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저는 그 당시 어머니랑 같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대 법대나 문리대에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평화시장의 실태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평화시장 옥상에서 이소선과 최종인, 이승철 외 청계노조 조합원들, 1971, 전태일기념관

장례식을 일주일 만에 치르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학생장으로 치르겠다고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정부나 사용자들은 난리가 났죠. 사용자 측에서 돈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회유했었고, 또 정보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시신을)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밀고 당기다가 저희 친구들도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학생들에게 (시신을) 건네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장례식을 치르자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대신 노조를 설립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어머니 곁에 한국노총, 학생들과 장기표 선생 등 이런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만들었어요. 8개 항목으로요.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노동청장이 8개 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에 한국노총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장례식 상주 역할을 제가 했어요. 장례식 치른 후에는 제가 어머니 집에 상주하게 되었어요.

이수호 이승철 선생님도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 그때 주로 어머니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위주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관계는 지금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승철 한 50년 전...,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11월 13일이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일요일에는 저희가 쉬어요. 삼동친목회를 할 때 중추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저하고 최종인, 임현재, 신진철이 열심히 했어요. 영문 이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요. 그때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김영문과 저였어요. 중간 과정은 지난번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으니 생략하고. 저는 전태일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누구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당시 종인이가 저랑 서교동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종인이가 어머니를

어느 시간에 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토요일인데 저녁에 종인이가 왔더라고요. 구치소에 있다가 한국노총의 김성길이 벌금을 내줘서 나왔다고 '내일 태일이 죽은 성모병원에 가 보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종인과 함께 성모병원 영안실에 갔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를 처음 봤는데요. 키가 작고, 보통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태일이 친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 종인이를 보는 눈, 저희를 보는 눈이 아주 애절한 눈이었어요. '너희들이 친구고 그런 일을 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는 간절한 눈빛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어머니가 "태일이 보겠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차마 볼 용기가 안 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죽은 곳에 가서는 음식도 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겠느냐고 하시는데요. 다 탔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못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보기가 그랬어요. 거기에 젊은 애들 5~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더니 "너희들이 전태일을 죽였으니 너희들이 책임지고 살려 내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떡살도 잡고요. 어머니가 자그마하신데도 그놈들을 야단치면서 우리한테서 그 사람들을 떼어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어머니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동화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신기호라는 분한테 갔어요. 태일이 가장 존경했던 형님이예요. 그분께 '태일에게 다녀왔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희들이랑 같이 하다 죽었으니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종인이는 다시 병원으로 가고 저는 서교동으로 왔죠. 그다음 날 저는 일을 나가했어요. 일을 안 나가면 안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노동운동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꼭 해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어린 마음인데,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생각일 수 있죠.

그렇게 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만 하고 있었죠. 18일인가 장례

를 치르고, 19일 날 종업원이 우리 공장에 왔어요.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네가 와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냐?” 했더니 “평화시장 옥상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했다. 동화시장 옥상에도”라고 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19일 날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그다음 날 사용자 측 사람들이 문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사기다. 장례 치르니까 사기를 쳤다’고 사람들이 을지로6가에 있는 여관에 다 모였어요. 그 당시 국회가 시청 옆에 있었어요.

이수호 지금 서울시 의회 건물이죠.

이승철 네. 그래서 국회에 쳐들어가자고 해서 러닝셔츠에 ‘전태일을 살려 내라’라는 문구를 써요. 그 위에 겹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찰들에게 알려져서 못 갔어요. 그런데 김태원하고 두 명은 국회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다시 노조 사무실을 뺏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일 지나고 며칠부터 제가 시간만 나면 점심때마다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때 저희 사장이 재단기를 사 주면서 “재단사 아저씨, 재단 빨리해 놓고 일 볼 것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세였는데도 재단사니까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일 끝내고 노조 사무실에 올라가서 회의 진행하고, 저녁에 모여서 또 회의에 참여하고. 11월 27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까지.

이수호 긴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어떻게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주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을 되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장례 과정이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청계피복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무실을 내줬다 빼앗아 갔을 당시에 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최종인 어머니는 집에서 헌옷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태일이가 성모병원에 오자마자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태일이가 “어머니 제 뜻을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대요. 어머니에게 그 말이 강렬하게 박혀서 (체구도) 자그마한 어머니가 엄청난 강단이 생긴 거예요. ‘강해져서 모든 사람이 와도 내가 중심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집안에 태일이 작은아버지가 있었어요. 작은아버지는 대충 돈 받고 합의 봐서 장례를 치르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작은아버지가 제시한 것을 거부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나타났으니까 태일이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어머니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믿고 힘을 가져야겠다 한 거죠.

태일리와 한 약속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기서 돈을 받으면 태일리를 두 번 죽인다고 생각한 것이고. 태일리가 하고 싶은 일은 평화시장 어린애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니까요. 사실 노동조합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태일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을 했고 저희는 노동조합은 몰랐으니까요. 근로환경이 너무 나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 태일이 활동이었어요. 어머니도 태일리가 그런 활동을 한 걸 대충 알았어요. 태일리가 죽어 가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으니 합의를 보지 않고, 평화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친구들과 함께 노조를 설립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기표 씨도 자주 만났어요. 이것은 사회문제가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평화시장 지역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한국노총에 김성길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힘을 주었죠. 한국노총을 통해서 노동조합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 허락을 하고서는 치른 거죠. 노동조합을 허락해 주겠다는 8개 항 조건을 그 당시 노동청에서 합의해 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죠.

이미 그 당시부터 어머니는 오직 태일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했어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태일이의 유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의 유업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태일이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사업도 많이 했죠. 정신이 올바르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친구들을 친아들처럼 보듬어 안고. 어머니가 정이 많아요. (태일이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과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각오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셔야겠다. ‘어머니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로 모실게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부둥켜안고 수없이 울었어요. ‘제가 아들이 되겠으니 태일이 대신 아들로 생각하시라’고 하고 태일이 집에 드나든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 역할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어머니와 함께했죠. 어머니는 뒤에서 우리를 돕고.

그때 창동에 20평 정도, 태일이가 옛날에 가건물로 지어 놓은 하꼬방집이 있었어요. 당시 남산 화재로 이재민들이 쌍문동 208번지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 집 큰방이에요. 저는 거기서 자고, 노조 활동 시작할 때에는 조합원들 20~30명이 매일 저녁에 모였어요. 그것을 어머니가 뒷바라지 다 한 것이죠. 어머니 딸이 전순옥이에요. 순덕이는 학교 다니고요. 전순옥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밥을 해주었죠. 그 가족은 오직 오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고방식은 태일이 뜻을 꼭 이루겠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오르지 않았나 해요.

이수호 두 분을 보면, 처음에 같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창동 집에 함께 살면서 어머니 아들 노릇을 자처하셨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지금 승철 씨도 처음에 어머니를 뵈었을 때 어머니가 보여주신 태도, 그리고 같이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종인 씨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승철 어머니가 아들 뜻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노동조합 관련 부분에서는 외부의 민주 세력들이 주장하고 이승택 노동청장이 합의한 8개 항 끝에 ‘노동조합결성 지원’이라고 관철시키게 됐어요. 제가 20일에 다시 사무실을 찾았을 때, 여관에서 어머니와 의논을 했는데 어머니는 별로 의견 제시를 안 했어요. 제가 뵈었을 때 당시 어머니는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모르구요.

어머니가 정이 많으세요. 21일, 22일 계속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있어도 발언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는 사람이고.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올라가면 말을 안 놓고 특별히 “점심 먹고 올라왔느냐?”고 물었죠. 아주 친절했어요. 당시에 친구 중에는 신진철이 많이 다녔어요. 그 후에는 저희 셋이 거의 관여했어요. 또 어머니는 노동조합 만들 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 아들 뜻을 이루어야 한다’든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당신이 좀 참여해 달라’라고 하시지 않고, ‘와 줘서 고맙다’라고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27일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처음 어머니를 뵈는데요. 어머니가 축사를 하셨죠.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말씀을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조합 결성한 날 큰 식당에 가서 삼겹살에 술을 먹었어요. 제 일생에 가장 많이 술을 먹어서 일어나지도 못했죠. 그 속에서도 친구한테, 아마 종인이한테 그랬나 봐요. 종인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으니까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가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재는 좀 착한 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 갔더니 “태일이가 쓴 글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첫 번째로 편지봉투를 주는데요. 그게 ‘태일피복을 하는데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쓰여 있는 반송된 편지였어요. 그걸 보고 뒤통수가 땡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눈을 하나 기증하고,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또 돌려주겠다고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는 계속 다른 거 보여 주고, 하나씩 보면서 일기장을 다 보게 됐어요. 22세의 나이에, 감수성이 풍부할 때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아까 최종인 씨가 이야기했듯이 순욱이가 반찬을 엄청 잘해요. 특히 콩나물무침을 엄청 잘하고 곁절이도 잘해요. 그럼 그거 해서 먹고. 어머니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말은 전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낮에 교회나 단체에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얻어 가지고 와서 우리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하셨죠.

당시에 우리는 노동조합하고 노동청을 구분 못 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을 포함하여 한 20여 명이 나와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차비를 줘요? 밥을 제대로 먹어요?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슬슬 빠져나갔어요. 12월 들어서 김성길 씨랑 해서 몇 명만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유정숙 씨도 오고, 박명옥 씨도 오



이승철

태일리와 어머니의 공통점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 어머니도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

어머니가 끝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뜻을 살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다 보니 차츰차츰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분들이 왔을 때 어머니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아들 이야기는 안 했죠. 어머니가 그렇게 보여만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니가 좋은 분이고 정이 많다. 태일이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깡패로 자라고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초창기에 노동조합을 인식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않으셨나 해요.

이수호 지난번에 정인숙 씨와 방금 말씀하신 유정숙 씨 구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정인숙 씨한테는 늘 ‘언니’라고 불렀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언니’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그때 정인숙 씨는 천주교에서 노동 관련 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에도 관여했었고.

이승철 JOC 회원이었어요.

이수호 유정숙 씨는 꼭 ‘미스 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종인 씨한테는 어머니가 주로 뭐라고 불렀나요?

최종인 ‘종인아’였어요. 어머니가 장례식 치르고 나서 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한국노총에서 김성길이라는 사람이 노조 지부장을 했어요. 어머니가 김성길을 자주 만났어요. 노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로조건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을 노조에 데리고 있을 것인지를 어머니가 예측을 다 하시고 김성길과 자주 만났어요.

이수호 전문가이니까요.

최종인 네. 그리고 김성길 집이 종로5가에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종로5가 김성길 집에 가서 김성길 약혼자와 김성길 어머니도 만났어요. 어머니가 김성길을 친아들처럼 대하면서 또 김성길이 지도자라고 인정해 주셨죠. 승철이 말처럼 말은 잘 안 하지만 깊은 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성길도 어머니가 ‘태일이 정신을 잇기 위해서 확고부동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기 청계피복노조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건설한 노조로 만들어야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화시장 옥상에 노조를 처음 만들 때는 복지시설도 전부 만든다고 했어요. 병원, 휴게실, 동화시장 옥상에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저에게 귀띔해 주었죠. 김성길이 지부장을 몇 개월 했어요. 그런 과정이 기록에 나와 있지만요. 그때 어머니가 김성길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것이죠.

그러다 노조에 연소한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진짜 사랑으로 안아요. 그냥 ‘조합원 왔어?’ 이런 식이 아니고요. 애뜻한 사랑이요. 애뜻한 사랑으로 대하지만 내면은 강인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보여요, ‘강단 있는 양반이다. 조그만 양반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 해요.

승철이 말처럼 어머니는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나 집행부 간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얼굴만 살짝 비추고 뒷바라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고문이라 해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고문으로 모셨지만 회의에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참견 안 해요. 뒤에서 지켜보는 것, 어머니는 노조가 잘되어야 태일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조가 잘 가게끔 지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복지시설, 병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복지 차원의 후생식당을 열어 운영했어요. 서울시에서 점심시간에 어린 여공들에게 하루에 300그릇을, 한 끼에 5원씩 주고 제공했어요. 어머니가 그 어린 근로자들을 보고 싶다고

식당에 취직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정보기관과 사용자 측에서 강력하게 막았어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쟁해서 어머니를 취직시킨 일도 있어요. 그만큼 평화시장 애들에게 애착과 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연소자들, 중견 미싱사들, 유정숙, 정인숙, 이숙희 등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정을 듬뿍 받은 것이죠. 진실하게요.

당시 우리가 집행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노조 선배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왔죠. 그것이 오늘 청계천 노조의 역사예요. 어머니의 역사예요. 어머니가 그런 애정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도 아무것도 몰랐었죠. 어머니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승철이나 저도 친구의 죽음을 개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조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 그래서 조금도 비틀어지지 않게 올바른 길로 노조 활동을 했어요. 어머니의 정을 그렇게 나눴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창동에 1~2년 살았는데요. 제 아내가 옛날에 미싱사였어요. 아내가 “왜 약혼을 해 놓고 결혼을 안 하나?”고 해서 제가 “결혼은 10년 후에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걸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너 나쁜 놈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일 하는데 나쁜 놈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 마음에 없는 결혼식을 했어요.

이수호 마음에 없는? (웃음)

최종인 어머니랑 주변에서 나쁜 놈 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저는 약혼해 놓고 10년 동안 노조를 지키려고 했는데 마음에 없는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아내가 충분히 뒷바라지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웃음)



최종인

당신들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다. 그러나 태일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죽으면 어머니 곁으로, 태일이 곁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주 한잔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예가 있죠. 그렇게 어머니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뒤에서 조정하고 지도를 해 준 거죠.

이수호 종인 씨는 ‘종인아’라고 불렀고, 승철 씨에게도 ‘승철아’라고 불렀나요?

이승철 처음에는 이름 부르지 않고 얼굴만 보면 바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 창동 집에 가서 일기를 본 후 제가 ‘어머니, 어머니’하고 부르니까 그때부터는 ‘승철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월 초 즈음부터 장 형(장기표)이 가끔 들어왔어요. 장 형하고 어머니하고 토론을 자주 했어요. 장 형이 법에 관한 이야기나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듣고,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노동조합 결성에 올인하셨어요. 조그마한 체구에도 엄청 당차시니까요. 대표적으로 1970년 12월 22일, 플래카드 걸어 놓은 것 때문에 경찰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가 전봇대 올라가서 끌어 내리고, 경찰 들하고 싸움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즈음에 저희가 다 죽겠다면서 분신한다고 투쟁을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다 죽겠다 싶었어요. 이게 노동청인지, 노동조합인지도 모르고 덤벼다가 예산도 없고, (웃음) 라면 5개 끓여서 십몇 명이 먹고. 나쁜 이야기지만 근처 을지로6가에 을지에 식당이 있었어요. 배고프니까 점심시간에 하객처럼 들어갔어요. (웃음) 그때는 찹쌀떡을 나눠 줬거든요. 그것을 나눠 먹었어요. 그것조차 못 하게 한 다니까 정말 죽고 싶어서 돈 조금 있던 것으로 갈비탕 사 먹고 그랬어요.

그때 김성길 씨가 한국노총 국제부 차장을 했었어요. 그분 사촌 형이 보안사 한국노총 담당이었어요. 그 인맥으로 한국노총에 취직한 것 같아요. 몰랐는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의감이 있는 데다 자기 집 건너편이니까 상황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종

인이가 그분한테 태일이 친구가 200명 정도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온 것 같아요.

김성길의 사고방식과 장기표의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그 이유네요. 장기표 씨는 조직을 만들어서 투쟁을 통해 정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김성길 씨는 아니었어요. 그때 동화시장하고 통일상가 사이에 50평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1층만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 공간들이 붕 떠 있었어요. 김성길 씨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그곳을 활용하여 후생복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22일 분신 소동 이후, 노사협회가 1월 9일 인가 정식 체결되었어요. 사용자들이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 왔는데요. 김성길 씨가 정부 쪽과 교섭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니까 한번은 어머니와 친구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 노동청 장실을 점령해야겠다. 이승택 청장 먹살을 잡든지 해서 기사를 크게 내야 다시 지원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너희들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모두 구속된다면, 청계노조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못 하겠다” 하니까 김성길 씨가 “나는 너는 지부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물러났어요. 그게 1971년 2월인가 그래요.

김성길 씨가 물러난 후에 어머니가 “최종인이 네가 지부장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니 종인이가 강력하게 “나는 못 한다”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해야 한다”였고, 저는 어머니 편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최종인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그러다 보니 김성길이가 “여기는 경험이 없으니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서울운수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하던 구건희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좀 있었어요. 김성길은 저희보다 네 살 정도 위였고, 그 사람은 스무 살인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김윤근이라는 사무장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 일을 맨 처음 저

희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신기호 씨하고 이야기했는데 신기호 씨를 믿는 편이어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거죠.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종인이가 지부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장 형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구건회를 받아들이고 김성길이 떠났죠. 그때부터 제가 뭘 하고, 임현재가 법규부장을 하는 식으로 운영했어요. 사람들이 없었죠. 2월 초순이 구정이었는데 종인이가 강력하게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노조에만 전념하며 어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71년 11월 13일 추도식 하는 날 장 형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지, 하면서 어머니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갑자기 12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장기표, 조영래, 심재권 등 네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장 형이 구속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11월에 아마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인가를 발표했을 거예요.

그때 저희는 하여튼 죽어라 노동교실 준비 작업을 비롯해 기존 활동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까 최종인이 이야기했듯이 헌옷 장사를 하셨어요. 동대문에 고물시장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옷을 사면 의정부 가는 버스가 종로5가에 있어서 거기까지 보따리를 메고 갔다가, 또 도착지에서 내린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500미터가 훨씬 넘어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옷을 다 빨아서 다려요. 그걸 내다 팔아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그 돈으로 노조 활동하고 그랬죠.

1972년에 유신이 선포됐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민주인사가 잡적하고 죽은 사회가 되었어요. 노동조합 활동도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요. 그 무렵에 종인이는 장가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없었죠.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조합원들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당시 어머니에 대한 느낌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밤에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동백 아가씨>를 그렇게 많이 불렀

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래서 제가 “어머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노동조합 조직을 열심히 해서 꽤 많은 조합원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20명이든 30명이든 오면 밥을 해서 다 먹이고, 포개져서라도 잠도 자고 그러다 아침에 모두 다 가고. 그런 사람들이 열성 조합원들이 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2.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수호 자연스럽게 장례식 치르고 노동조합 결성하면서 초창기에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정이 넘치는, 어느 때는 참 포근하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 특히 두 분께서는 보통의 어머니 이상으로 아들처럼 생각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계피복노조가 설립된 이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청계피복노조설립 이후에도 마치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양지와 음지에서 조합원들과 노조를 두루 돌보셨습니다. 노조설립 초기에 어머니께서 쓰신 일기를 보면 여기 친구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노조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쓰여 있는데요. 조금 전 수장고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내외부의 일들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올바른 판단력과 기지로 위기대응 능력이 대단했는데요. 그런 일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노조 운영 과정에서 사용주나 혹은 조합원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위치였는지, 어머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꺼리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기도

하는 여러 모습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금이나 운영 자금 수급 및 돈을 벌고 기금을 마련하는 데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후생식당에 근무했던 이야기. 또 정부와 사용자 측의 탄압 및 투쟁 과정에서 어머니의 통찰이나 판단력이 빛난 경우, 좀 전에 나온 노동청장실 점거 이야기인데 그 당시 노동청장은 현재 노동부 장관이죠. 어머니가 점거를 말렸잖아요. 정말 대단한 판단력인데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자문위원, 고문, 노동교실 실장 등 여러 직책으로 불리었지만 직책을 떠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노동교실과 관련된 어머니의 모습, 노동교실이 폐쇄된 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 또 통상의 노동자 활동을 넘어서 외부와 연대하는 모습,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길 씨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것처럼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인 이승철 씨가 이야기한 노동청장실 점거 사건이요. 그 전에 김성길이 운영하다 보니까요. 김성길은 정부의 예산을 따서 정부 프로젝트로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승철이, 저, 노조 간부 몇 명한테 “너희 5명이 노동청을 점거해서 휘발유 끼얹고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축이 빨라요. 김성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애네가 가버리면 노조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다 알아요. 노동청에 들어가면 불만 지르지, 우리가 구속되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빠르고 축이 빨랐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그때 저희는 김성길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김성길 말은 무조건 옳은 길이라고 순종했어요. 그 사람처럼 법규를 알고, 노조를 운영하는 방



전태일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된 <전태일기념사업회> 현판

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 말이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성길이 말처럼 잘 안되니까 ‘노동청을 점령하자’고 해서 저희가 점령하려고 한 거죠. 점령하고 끝장내자. 그런데 어머니가 축이 빠른 양반이라서, 딱 거부했죠. 저희에게 모이라고 하더니 “안 된다. 너희들 가면 노조는 없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위험한 순간을 어머니가 막았죠. 저희는 아는 게 없고 행동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축이 빠른 분이라는 거죠.

저는 친아들과 다름없었죠. 저도 어머니라고 모시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앙시장에서 헌옷을 떼어다가 수선한 후에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았어요. 어머니는 옷을 팔고 나서 저녁 늦게 노조 사무실에 와요. 자주 오지는 않고 어찌다 아이들 보고 싶다고 보따리 들고 오세요. 그때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노조에서 평화교실 교육을 했었어요. 중등과정인데 3개월이에요. 애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애들 공부 가르치니까 흐뭇해서요. 그때는 제가 이미 집에서 나왔을 때니까 승철이가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고 그랬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승철이와 제 역할이었고 근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요. 어머니 가실 때까지도,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승철이하고 제가 커트시켰죠. ‘어머니가 옳다’고 하고, ‘너희들이 문제야. 어머니를 모셔야지’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사고방식은 너무 순수합니다. 오늘날 역사를 돌이켜 봐도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태일도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죠.

저는 어머니 장례식 때 어떤 것을 느꼈어요. 커다란 걸개그림이 있어요. 태일이 어머니 영정 사진을 안고 가는 그림이에요. 그 이전 태일이 장례식 때 노총이랑 평화시장 근로자들이랑 해서 버스 15대로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른 적이 있어요. 11월 18일인가 했는데요. 어머니가 태일이 영정을 보듬고 울부짖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마지막에는 걸개그림으로



전태일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된 이소선 관련 자료

재탄생시켰는데요. 태일이가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자기 옆에 모셨잖아요. 태일이가 ‘어머니, 참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모셔 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모자시간이 없어요.

이승철 어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장 형이 자주 와서 토론도 하고, 나중에 김문수도 합류해서 장 형이랑 같이 토론을 했는데 노동조합은 조합주의가 아닌 투쟁 중심의 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1973년도 5월 21일에 노동교실이 개관했어요. 7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요. 아까 종인이가 이야기했던 중등교실 3개월 과정은 50명 모집한다고 하니까 200명이 왔어요. 가르치는 선생들은 YWCA 대학생 봉사단으로 주로 이대생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노동교실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노동교실을 만들려고 정인숙 씨가 청와대에 가서 노동교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육영수 여사가 언급하니까 그때 사용주들이 300만 원을 모금해서 노동교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걷으니까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노동조합한테 진행하라고 했어요. 일등 공신은 최종인이예요. 최종인이 장부를 넘겨받아 돈 안 낸 업주를 쫓아다니면서 “3만 원인데, 안 내셨다. 내시라”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노동조합에서 찾아가니까 그제야 돈을 내주고 그랬죠. 그렇게 300만 원을 모아서 동화시장 옥상에 노동교실을 열었어요. 필요한 비품 등은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소위 ‘아프리(AAFLI)’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5월 21일에 개관식을 했어요.

그때 내부적으로는 육영수 여사가 오기로 했었다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죠. 그날 식순을 이선두라는 사람이 썼는데 자주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함석헌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저희 교실이 생겼으니 기쁘게 오세



새마을노동교실 이전 개관식에서 이소선과 아프리 관계자, 청계노조 조합원, 1975, 전태일기념관

요”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만나실 때 제가 따라다녀서 함 선생님을 잘 알았거든요. 제가 통화에서 “선생님, 꼭 와주셔야 합니다” 하며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셨는데,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재야인사 최고가 왔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개관식은 했어요.

그다음 날 동화상가 이운규 사장이 노동교실은... 노동교실을 그때 ‘새마을노동교실’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름이 ‘새마을’이든 ‘유신’이든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이후에 청계노조가 어용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마을이란 이름만 보고 (웃음) ‘새마을 운동을 했고, 새마을노동교실을 했다. 그것은 어용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필요해서 했지만 그나마 뺏겼죠. 그러면서 요구 조건이 ‘이승철이 상근에서 나가야 한다’였어요. 그때 제가 사무장이었는데 제 생각에 이승철이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어머니 집에서 다니니까 주로 어머니 말을 전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를 잘라 낸 것은 결국 어머니를 잘라 내기 위한 구실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전임수당을 15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중단시켰어요. 노동조합비 공제해 주는 것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차원에서 상가를 방문하면 경비들이 무조건 싸워서 내쫓고 그래서 활동이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조합원들 일부에서도 제가 나가서 활동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제가 스스로 그만둬야지 노동교실이나 노조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물러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어머니하고 장 형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만두면 정부는 계속해서 더 순종하라는 요구를 한다. 여기서 버텨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때 노조에 최일호 씨가 지도위원으로 있었어요. 최일호 씨나 다른 친구들 일부도 “솔뚜껑을 덮어 놓는 것보다는 일단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그만두고 다시 오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해서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아까 수장고에서 본 어머

니 일기가 그때 쓴 일기예요. 당시 어머니는 종인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 편에 서서 뭐라고 하니까 혹시 종인이가 오해할까 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일기를 보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9월에 상근을 그만뒀어요. 그때 양승조, 신정은 씨가 있었는데 신정은 씨는 신기호 동생이에요. 양승조, 신정은, 신진철까지 이 세 사람이 조합원들 사이에 안 좋은 평들이 있어서 일괄 사표를 냈죠. 그렇게 네 사람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죠. 그리고 저는 나가서 공장에 바로 취직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강경하게 ‘정부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구건회가 있을 때도 자꾸 어머니를 잘라 내려고 했어요. “보따리 싸 들고 창피하게 찾아오지 마시오”라고 해서 종인이가 싸우기도 했죠. “왜 어머니를 못 오게 하시나” 하면서요. 그러다가 구건회가 여성 조합원을 성희롱하면서 나가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노동법을 잘 모르셨죠. 교회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아들의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었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차츰 노동법을 알게 되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점점 노동 투사가 되어 가셨죠.

그리고 제가 물러난 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 진단이 났냐면 ‘조직이 없어서 싸움을 강력하게 할 수 없어 물러나게 되었다. 이승철이 물러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간부가 오든 강경하게 나가면 잘라 내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한 거죠. 그때 제가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임종률 교수, 이숙희 등 6명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는데요. 그게 나중에 기존에 근무했던 친구들과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비밀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최일호 씨 같은 경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어머니가 1975년 5월 7일 날 농성을 해서 노동교실을 되찾은 거예요. 그때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숙희, 김혜숙 등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농성할 때 사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것을 간부가 알고 있으면, 잘못하면 또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되니까 노조 간부들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알기 두 시간 전에 최종인에게 연락했고, 그들도 합류하여 같이 농성을 해서 노동교실을 뺏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자기 활동 때문에 노조 간부 한 명이라도 정부의 지목을 받아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의 활동을 간부들이 모르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수호 어머니가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승철 씨와 중인 씨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펼치고 또 형식적이지만 직책도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며 아들의 뜻을 잇기 위한 일들을 나름대로 차근차근 진행했던 것 같아요.

3. 생활 속의 어머니

이수호 참 뭐랄까요. 아드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아드님이 되시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절절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다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저도 새롭습니다. 당시 현장의 치열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현장이 아닌 일상에서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창동 집에서 기거하며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이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등 친아들이라고 해도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고민

이 있으면 두 선생님에게 종종 의논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처럼 두 분 선생님께서 투사로서의 어머니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머니의 모습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는 어머니 일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실 내용은 어머니를 친아들처럼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무엇인지. 이미 대체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창동 집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계기, 창동 집에서 겪은 인상적인 사건들이나 이야기들, 어머니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떠셨는지, 생활 습관이나, 평상시 말투, 어조, 취미, 또 좋아하는 물품 등등이 궁금하고.

또한 어머니가 선생님들과 상의한 고민 중에 인상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선생님들의 가족과 어머니의 관계는 어떠한지. 아까 장가가고 할 때 특별히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또는 선생님들이 보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관계, 아까 순옥 씨의 경우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등을 떠오르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씨부터 할까요?

이승철 어머니가 창현교회인가, 거기를 다니셨어요. 태일이 사건이 났을 때 교회 목사가 교인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제가 창동 집에 살면서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태일이 사건 나기 전에 안수 기도를 아주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아픈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나왔다고 해요. 그런 분이셨는데 아들을 비판하니깐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 71년에 장 형이 구속되고 1972년 유신 때 저보고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어디요?’라고 하니깐 정의여중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싫은 게 처음 가면 일어나게 해서 박수를 쳐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있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어느 정도 물이 들면 박수를 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다니자고 해서 계속 다녔죠.

그러다가 저녁에 할 일이 없을 때 제가 성경을 봤어요. 1년 동안 구약, 신약 다 봤어요. 거기에 보면 ‘매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조합은 일요일이면 조합원들 데리고 교육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교회에 가면 목사가 맨날 그래요. ‘오늘도 들과 산으로 헤매는 우리 누구를 어찌고...’ 하면서 그걸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다니다가 제가 “어머니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라고 하니깐 그 이야기로 토론한 후에 어머니가 “그래 우리 그만두자” 하면서 (웃음) 교회를 그만 다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71년, 72년 그즈음에 아주 좋아하셨던 것이 성계예요. 성계가 짹짹하잖아요. 중앙시장에서 사 오세요. 자르고 알맹이를 꺼내서 “먹어 봐라” 하세요. 그럼 제가 “어디 좋은데요?” 하면 “밥맛 나는 데 좋다”고 하셨죠. 그 시절 성계를 먹었던 기억도 나요. 또 기억나는 건 제가 장가간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부인한테 “너 우리 지부장한테 시집와라”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무렵 저한테 “너 이렇게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되겠냐?” 하셨어요. 거기가 화재민 촌인데 5천몇백 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철거를 시킬 수 없고,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양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27평이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27평씩 나누고 나니 남은 평수가 37평이었어요. 어머니가 재테크에도 밝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걸 하나 사고, 저보고도 하나 사라고 하셨어요. 27평을 2천 원씩 해서 5만 4천 원이면 사는데 돈이 없어서 할부로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3천 원씩 주고 제 이름으로 샀어요. 그렇게 판자촌을 15만 원을 주고 샀었고, 제 땅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소유니까

요. 그래서 옆에 판잣집 하나를 사서 장가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75년도부터는 조합원들 사이에 투쟁이 많이 있어서 노동조합과 우리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가 그걸 엄청 안타까워했어요. “너희들이 싸움 나면 다 다치니까 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 준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걸렸던 것은 제가 조합원들에게 지부장 불신임을 받을 때 어머니가 앞장을 섰거든요. 장 형이 제일 먼저 그걸 제시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구속되셨잖아요. 어머니가 구속되었을 때 기관에 “면회를 왜 가족만 시켜 주냐. 다른 사람도 시켜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저랑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람은 이런 곳에 있으면 약해질 수 있다” 하면서 저랑 친구들을 배척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나가면 제자리로 다시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큰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시고 어머니 뜻대로 하면 큰 혼란이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77년도 10월인가요. 그때 아내랑 형님 집에 같이 다녀왔는데 유리창이 다 깨졌더라고요. 공동수도가 이만한 게 있는데요. 우리 집은 언덕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유리창이 다 깨졌더라고요. 유리창이 왜 깨졌는지 누가 그랬는지 의아했는데 노조에서 온 애들이 벌인 일이라고 해요. 민중덕, 신광용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난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했지만 그게 장난하다가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장난은 바로 옆에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테러죠. 어머니 말씀도 있었지만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77년 12월 30일에 일시적으로 그만두었죠. 어머니가 나중에 나와서 저에게 “잊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있을 수 없었고, 또 어머니가 나와서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조직의 운동 원리가 아니고 혼란만 올 것 같아서 잠시 나가 있었습시다”라고 했

죠. 그리고 79년도에 최종인이 양승조 있는 데로 오라고 해서 두말없이 가서 활동했어요. 하여튼 어머니는 친구들이나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종인이라든지 저라든지 누구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운동하다 보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74년 4월 3일은 제가 노동교실 때문에 노조에서 쫓겨 나왔을 때예요. 73년 10월인가 그만두고요. 당시 민청학련 사건 무렵에 장 형이 저보고 시장에 나와서 불 지르고, 구호 외치고, 도망가라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를 꼭 붙잡고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친구들이 노동조합 해야지. 학생들이 하는 것은 정치 운동이라서 절대 가면 안 된다” 하셔서 안 갔어요.

민청학련 사건이 창동 옆 동네에서 일어난 것으로 발표가 났죠? 그쪽에 장 형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잘 아는 집사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장 형이 거기 있는데도 호구 조사를 나오면 “없다. 문 열어 보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방법이 안 열어 본 거죠. 그때 어머니랑 둘이 상의했는데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장 형을 그곳에 두는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방에 크게 구멍을 파서 그곳에 큰 항아리를 들여 놓고 낮에는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냐”는 것도 의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잠잠하니까 장 형이 거기서 몸만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그곳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머니가 책을 가져러 가요. 그리고 저보고는 버스 정류장에 가 있으래요. 어떻게 몰래 책 보따리를 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들고 서교동 우리 형님 집에 가져다 놓았다가 장 형이 자리 잡았다고 해서 보내 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럴 때 보면 엄청 담대해요. 그 당시엔 사형시킨다고 할 때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동자 집에 가서 책을 가지고 온다는 것

은 상당한 모험이었죠.

또 한 번은 72~73년쯤이에요. 제 이종사촌 형이 있는데 간질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간질 걸린 사람들이 목매단 사람 목줄을 불에 태워서 재를 마시면 낫는대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동네가 목매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가시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승철아, 나 목줄 가지고 왔다” (웃음) 하시더니 치마 속에서 허리띠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죽은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보니 부인이 “남편이 저걸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면서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오물오물하다가 훔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촌 형한테 줬는데 그걸 먹고 나았는지. 그때 기독교회관에 간질 있는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장미회인가, 그게 있었어요. 거기도 제가 알려 줬는데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그 뒤로 간질이 나았어요. 하여튼 종교인들은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내가 부탁을 해서라기보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인정 때문에 허리띠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해요. 어머니에 대한 느낌은 어떨 때는 강력한 투사이고 어떨 때는 정이 넘치는 어머니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이수호 중매도 하신 거죠?

이승철 네.

이수호 중매하셔서 잘 살고 계시고. 중매하니까 아까 종인 씨도?

최종인 어머니가 저를 중매한 건 아니고요. (웃음)

이승철 제가 이야기할게요. 종인이는 약혼까지는 했는데, 노동운동 때문이든 어쨌든,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 결혼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니?”라고 해서 저하고 둘이 종인에게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결혼했죠. 결과적으로 잘했지 뭐, 잘못된 게 있나? (웃음) 제가 말씀드리면요. 많은 친구 중에서 자기 남편을 최고로 치고 사는 사람은 종인이 부인이예요. 우리 아내는 안 그래요. (웃음) 종인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최고로 잘났고 최고로 잘생겼다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짜증 나요. 뭐 그렇게 잘난 것만 있는가? (웃음)

최종인 그 당시 어머니가 “결혼 안 하면 좋은 일한다고 명예를 더럽힌 거다. 노조 그만둬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할 수 없이 날짜를 잡고 결혼한 것이죠. 결혼하고 어머니 집에서 나왔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머니 집 바로 옆에다가 방을 얻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애 낳았을 때도 어머니가 우리 애들 키워 주셨고, 어머니하고 가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또 한 번은 어머니와 노조 활동할 때 점심때도 라면 저녁때도 라면 아십니까? 우리가 인원은 15~20명인데, 항아리에 불을 때서 라면을 끓여 먹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우리 고기 먹고 한번에 다 죽어버립시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화여자대학교에 이효재 교수가 특별히 전태일 사건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수호 아주 좋은 분이시죠.

최종인 네. 거기 학생들이 여기에 야학으로도 많이 왔었는데요. 어머니를 유별하게 따듯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그분한테



이승철



최종인

이야기해서, 을지로6가에서 고기 실컷 먹었어요. (웃음) 어머니가 그런 애
투한 정이 있었어요.

이승철 이효재 교수하고 이우정 씨 있잖아요. 그리고 한 분 더해
서 세 분이 오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이미경 씨라고 그분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들은 고기를 좀 먹어야 한다”고 하고는, 을지로6
가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종인이 말마따나 저
도 그 말은 안 했지만 ‘고기나 한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웃음)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그쪽에서 오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럼 밥 사 줘
라’라고 한 것이죠.

이수호 후원자를 모시고 온 거네요.

이승철 그렇죠. 이효재 교수하고 이우정 씨하고 한 사람 더 있는
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최종인 특별히 저를 호칭할 때는 종인아, 승철아, 현재야, 진철아
하고 불렀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정을 제일 많
이 준 사람이 승철이하고 저였어요. 어머니하고 노조 활동할 때는 어머니
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죠.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저
녁에 집에 가서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이러이러하게 돌아가니 잘될 겁
니다’라고 해야 어머니가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현우
장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창피해하고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구건회니 김
성길이니, 구건회가 지부장 할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할 때
는 보따리 구석에 박아 놓고 얼굴 보러 왔어요.

지독히도 평화시장 근로자들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저는 그렇

게 사랑을 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
했겠죠. 그런데 친아들 친구, 아들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아들들을 지독
히 사랑했다. 이런 어머니가 사회에 어디 있겠나? 어머니의 사랑을 극진하
게 받았다. 우리 역시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머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
다. 잘못되어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노조의 책임자는 친구들이 해야 한다”고 하셨어
요. 김성길이 가고 난 후에 승철이 말마따나 “종인이 네가 해라”라고 하셔
서 “저는 노조의 노 자도 모르고, 법규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할 거면 그
만두겠습니다. 죽어도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음 지부장으로 구건회가 왔을 때 구건회를 제가 내보냈어요. 승철이가 어
떤 문제를 찾아내서 “안 나가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 뒤로 어
쩔 수 없이 제가 맡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마
지막에 정리를 내가 해야 한다”고 해서 지부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발 벗고 나서서 기뻐했어요. 마치 태일이가 지부장 맡은 것처럼
“태일이가 죽어서 이 노조를 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이
야기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미안하죠. 알지 못하
니까요. 알아야 하죠. 몸으로 때우는 거야 어디 부딪치라고 하면 몸을 아끼
지 않았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아까 민청학련 사건 났을 때 승철이는 장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는
데 결국 제가 바가지를 쓴 거예요. ‘노조 지부장이 거기서 데모하기로 했
다’고 정보가 샀어요. 보안사에서 7~8명이 와서 사무실 다 뒤집어 놓고는
저를 끌고 갔어요. 보안사에 가서 이틀 동안 “처음에 너 살아온 과정을 써
봐라” 하며 두 번 쓰라고 하는데 당연히 두 글이 다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10년 동안 등이…. 그리고 당시 ‘서빙고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에서는 지부장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고, 모여서 데모한다고 하니

까 한국노총에 출입하는 정보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최종인)’ 장인은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교수도 아니고 생선 장수고, 그 사람은 그걸 안 했고 등 그런 사실들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걸 제일 안타까워했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다칠까 봐 저랑 직접적인 의논을 안 했어요. 책임자 다치게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축이 빠르고 결단력도 빨라서 판단하면 바로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유가족협의회를 운영했죠. 유가족협의회 회장이 그냥 되었습니까? 어머니는 어느 근로자가 죽었다고 하면 병원에 가요. 김진수 사건이라고 있는데 내용은 승철이가 잘 알고 저는 깊은 내용은 몰라요. 병원에 가족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타나면 2천만 원에 합의할까, 하면서 차츰 금액이 올라가요. (웃음) 유가족 비용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디든 누가 죽었다고 하면 쫓아가서 선동을 해요. 앞장서서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근로자가 죽었다, 누가 분신자살했다 하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쫓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 채 저 밑에 묻힐 사건이 크게 기사가 나고 사회 문제화돼요. 그렇게 사건을 크게 만들어요. 어머니 축이 빠르니까요.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분신을 하면 잠깐 신문에 나고 회사와 합의를 보면서 사건이 끝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가면 꼭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서 민주화가족협의회 열사가 되고 유가족협의회 열사가 되고. 하나, 둘, 셋, 넷이 모여서 40~50명이 되고. 그렇게 거기 회장을 하신 거죠.

유가족협의회를 만드는 그 당시에 어머니가 김대중 선생을 자주 만났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지만. 당시 유가족협의회에서 집을 만들기 위해 모금 운동을 했어요.

이수호 한울삶?

최종인 네. 작품들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김대중 선생 집에서 가져갈 것이 5천만 원짜리, 김영삼 집에서는 3천만 원짜리를 정했는데 김영삼 씨가 당시 민자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간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뜬 거예요. 그래서 싸게라도 팔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종인아, 이런 게 있는데 너희 집에 가져가고 형편 되는대로 돈 몇 푼 내나라”라고 해서 제가 형편대로 몇 푼 내놓았죠. 그때 김영삼 씨 집에서 가져온 게 저의 집에 있어요.

이승철 종인이가 가져간 것은 무등산 그린 병풍이에요. 200만 원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전화로 “승철이 와서 이것 좀 해 줘라”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스님이 그린 학이에요. 5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50만 원은 엄청 큰돈이었어요. 80년대 장사할 때 적자가 났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주고 사서 우리 집에 댔죠. 어머니가 우리를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쯤이었어요. 종인이가 어떤 걸 제안했는데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한 8명 있었어요. 노조에 관여했던 친구부터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김영태, 주점수 등이 25,000원씩 각출하여 20만 원을 만들어서 10년 가까이 교통비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총무였어요. 그걸 10년 가까이 꾸준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명절 때는 창동에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 가기 전에, 그때는 차가 있었으니까 과일 한 상자 싣고 가서 드리고 오는데요. 어떨 때는 차가 너무 밀려서 고향을 못 간 적도 있어요. 창동에 다녀오느라 하루가 걸려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구정 때는 보통 3일 전에 가잖아요. 제가 항상 만 원짜리 새것으로 2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손주들 세뱃돈 주라고 드렸어요. 그다음에 만나면 그래요. “승철아, 네가 준 새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애들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웃음) 명절에는 종인이랑 저랑 둘만 다녔던 거로

기억해요. 다른 친구들은 형편이 안 좋아서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희는 운동에 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으로도 묶여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75년도에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에서 교육을 받는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적는 수업이 있었어요. 다들 전태일을 쓰거나 안중근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이름을 썼더니 신일영 교수가 “왜 어머니를 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어머니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을 때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돈 받고 끝나지, 누가 그 돈을 뿌리치고 아들 뜻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얻어맞아 가면서 운동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는 평상시에는 자상하고 평범한 여자인 어머니. 노동운동 판에서 농성할 때는 앞에 나서서 경찰을 막아서고, 맞고, 구둑발에 차이는 투사로서의 어머니. 지금 살아 계셨다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웃음)

이수호 최종인 씨는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최종인 (웃음) 저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이수호 어머니가 야단을 치거나 했던 일은 없었나요?

최종인 야단을 크게 안 치세요. 만약 제가 생각을 잘못한다면, “종인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시지만 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어머니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하는 과정이, 글을 대독해서 썼다든지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민중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이야기 잠시 해도 될까요?

이수호 다른 사람보다는 어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최종인 저는 어머니가 빨리 오라면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요. 무조건 어머니 편일 수밖에 없죠. 저는 잘못돼도 어머니 편이고 잘돼도 어머니 편이에요. (혹시 어머니에 대해 무슨 소리가 들리면) ‘너 어머니 이리신다, 나가! 다음 사람 와 봐. 너 어머니 모시고 다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화가 나면 앞뒤가 안 보여요. 다 덮어버려요. 제 성격이 한번 결정하면 결론을 내야 해요. 옳는 성질이 있어요.

이수호 하여튼 그 어려운 시기에도 명절 때 늘 찾아뵙고. 그러는 걸 보면 종인 씨는 오히려 낳아 주신 엄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최종인 어머니 살아 계실 동안에 승철이하고 저는 명절 때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고향 부모님 생일이나 제사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요. 승철이와 저는 꼭 이소선 어머니를 찾아뵙는 때, 우리가 어머니보다 생활이 나오니까 용돈도 드리고 항상 뭐 하나라도 사 드리고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뵙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덮어 줘야 해요. 옆에서 감싸 줘야 해요.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유가족협의회를 끌고 오는

데 어머니 역할이 컸다고 봐요. 어디 누가 돌아가시면 쫓아가고, 아무리 힘 들어도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가족협의회를.

이승철 그런 부분은 유가협 이야기할 때 나올 테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머니가 착실한 기독교인이예요. 그분들도 제사를 지내는데요. 저는 밥상 차려 놓고 둘러앉아서 찬송가 부르는 제사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제가 조금 짓궂어서 담배 피우다가 그 담배를 제사상 위에 올려놨어요. “아니 담배를 왜 올려놓느냐?”고 해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 담배 피우셔야지요”라고 하니깐 “기독교인은 담배 안 피운다” 하세요. 제가 “그래도 피우셔야죠”라고 하면 억지로 그 담배를 치우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90년대였나요. 한번은 명절에 지나가시다가 우리 가게에 들렀어요. 제가 “어머니 웬일이세요?” 하니깐 “지나가다가 너 선물 주려고 들렀어.” “뭘데요?” 그러니까 단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김대중 씨 집에 갔는데 선물 들어온 거라고 주셨다. 너 먹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홍삼 엑기스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죠. 그냥 놔뒀더니 엉겨버렸어요. 저는 ‘꿀인데 변했다 보다’라고 생각해서 버린 기억이 있어요. (웃음)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을 그걸 어머니한테 준 거죠. 어머니는 그걸 집에 들고 가다가 저에게 주신 거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엑기스인데... 바쁘니까 먹을 틈이 없어서 놔뒀다 나중에 먹으려고 봤는데 까맣게 변해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먹고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크게 다툰 적도 있어요. 노동조합 관련 일들 때문이에요. 그러다 75년도 노동교실에서 추도식하고 단속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관점에서 그들을 지지한다고 해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제가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있다 보니

까 친구들은 친구대로 저를 욕하고,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욕했죠. 그럴 때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모르지만, 조합원들은 네가 안다고 생각해서 오해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웃음)

4. 열사와 어머니

이수호 두 분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텐데요. 말씀만 들어도 어머니의 푸근한 표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두 분께서는 전태일 열사와 함께 노동운동을 하고, 어머니와도 함께 노동운동을 하신 흔치 않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히 두 분을 비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분명히 열사와 어머니 사이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두 분의 삶과 사상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판단하시는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또는 일상에서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을 잘했다거나 결단력이 있다거나 상황에 따른 신중함이나 여러모로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한 인간으로서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또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이소선 어머니의 정신, 생각,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최종인 태일도 빠른 사람이에요. 걸음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결단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머니는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태일이 아

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을 책임지셨고. 헌옷 장사를 비롯해 안 해 본 장사 없이 열심히 사는 가정이에요. 물론 태일도 가정을 같이 책임지고 끌고 갔지만요. 그런 가정에서 큰아들이,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마지막 유언이 ‘어머니 제 뜻을 꼭 이루어 주세요, 제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해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의 유언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랑 만나서 인연이 40년이 되었는데요. 아들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노인이 되어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여성운동가가 어디 있으며 이런 양반이 어디 있겠냐?

저희를 아들로 생각해 주고 지금까지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것에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태일이한테 감사한 마음,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어머니가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친구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전태일기념관이라는 자체가 생긴 게 꿈이에요. 꿈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태일이한테 가서 할 이야기가 생겼다. 나는 네 뒤를 못 따르고 다하지 못했지만 너의 꿈을 조금이나마... 전태일기념관을 만들었으니 죽어서 태일이를 만나면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승철 태일리와 어머니의 공통점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 어머니도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 어머니가 끝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뜻을 살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의 뜻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10여 년 만에 뜻을 접었던 것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 되었든 태일이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살았던 기간이 참 행복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이수호 지금 일흔을 다 넘기시고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는 때가 돼버렸는데요. 두 분을 보면 태일이나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같이 있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삶에서 행동할 때마다 늘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태일이 친구인데, 함부로 이런 것 못 하지’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머니와 태일이, 어떻게 비교하거나 할 수 없지만 결국 어머니 안에도 역시 태일이가 늘 자리 잡고 있었고, 항상 중심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도 살아오면서 부담이 되었다거나 또는 힘이 되었다거나 이런저런 경험이 많을 텐데요.

최종인 저는 부담된 것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초부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평화시장에 들어온 후에는 노동자로 노조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커 나가는데요. 저는 평화대학을 나왔다고 항상 주장해요. 우리 평화시장 근로자들이 엄청 똑똑해요. 다 어머니 닮아서 그렇겠지요? 하여튼 평화대학 출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생활해요. 저도 평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수하고도 대화할 수 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단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태일이를 알고 또 어머니를 알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태일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갚을까? 성장했구나! 사업들도 하는 것마다 열심히 해서 잘되고, 그것은 모두 태일리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신을 따라서 사업도 잘된 것이다.

나는 특별히 성공한 예이다. 너무 감사하죠.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당신들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다. 그러나 태일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죽으면 어머니 곁으로, 태일이 곁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주 한잔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승철 저는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태일이 있어요. 친구였고, 이소선 어머니가 믿었던 아들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거나 그 정신에 반하는 삶은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종인은 가서 만나겠다고 하지만, 저는 죽음은 한 줌의 흙으로 되는 것이지 살아 있는 동안 수치스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수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연세가 많긴 했어도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말씀을 못 하시고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상당히 오래 계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요. 그 무렵에는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최종인 우리가 힘이 드나요? (웃음)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어머니가 마지막 영면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을 뵙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순리는 한번은 다 가는 것이니 그 순리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머니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는데 거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개 그림, 태일이 모시고 갔다는 거죠. 태일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태일이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태일이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림과 그 광경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걸린 것은 없더라고요.

이수호 태일이나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잘 사신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승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는 늘 생각해요. ‘어머니는 참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다’라고요. 그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슬퍼했고 존경을 표했다는 것은 참 잘 살다가 행복하게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한 게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지 말고 친척들에게만 이야기해라.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이런저런 사람을 부르냐. 다만 외롭다면 꼭 부를 몇 사람만 불러서 해라”고 했어요. 저는 별것도 안 한 사람들이 부조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을 한 거죠. “언제든지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니까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장례 지내고, 정 허전하다면 몇 사람만 불러라. 그리고 장례 치르고 3일 후에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분들에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만 해 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보고 너무 외로우면 몇 분 부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별나죠? (웃음)

이수호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가 아까 <동백 아가씨>를 좋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승철 저는 그때 <동백 아가씨>라고 알았는데요. 나중에 80~90년대 인터뷰 보니까 <질레꽃>인가 다른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수호 '질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리고 <해운대 엘레지>도 좋아하셨다고 해요.

이승철 70년대에는 <동백 아가씨>를 자주 불렀어요.

이수호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최종인 저는 잘 모릅니다. (웃음)

이수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동백 아가씨> 불러 주시죠.

이승철 (웃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사연~.

이수호 그건 2절이고. (웃음) 수많은 밤을.

모두 (노래)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동백은~ 빨강계~ 멍이~ 들었네~.

이승철 그 노래를 부르시면 아주 처량해 보여서, 옆에서 아주... 저도 가슴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종인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웃음)

이수호 긴 시간 동안 기억을 되살리면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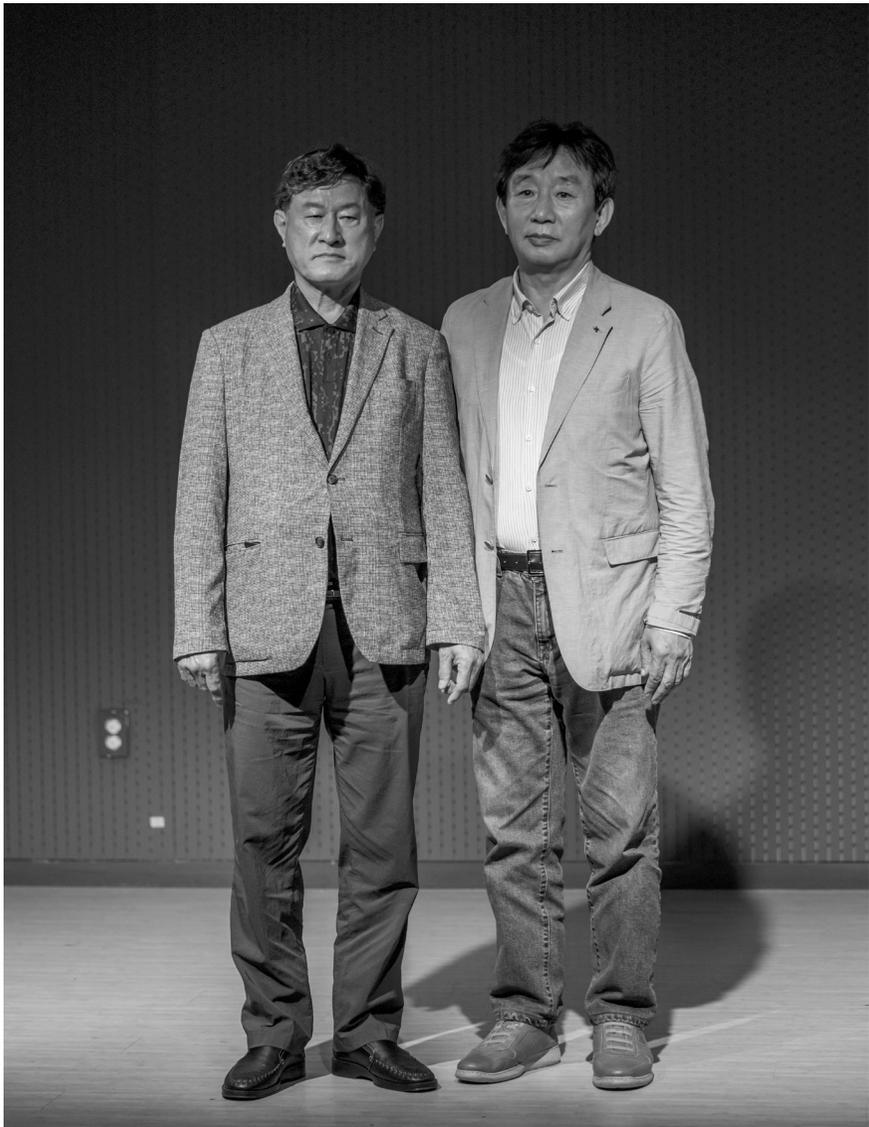
요. 지금까지 이소선 어머니의 동지이자 또 다른 아들인 최종인, 이승철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두 분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활동하며, 어머니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김대현 작가님, 보탬 것이 있으실까요?

김대현 마지막에 부르신 노래가 사모곡 같았어요. 노래 가사도 딱 맞았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들었던 내용이 새로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호 촬영감독님은? 그럼 오늘 노동구술기록은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전태일의 친구였던 두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인 감사합니다.

이승철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이승철, 최종인



왼쪽부터 이승철, 최종인, 이수호, 임현재